



2013 2013.6.29 ~ 7.6
인천 실내&무도[武道]아시아경기대회

기간 | 2013.6.29 ~ 7.6 [8일간] 장소 | 인천광역시, 안양시, 안산시 참가규모 | 4,400명 [선수단 및 임원, 미디어, 초청인사, 심판 등]
 경기종목 | 9개종목 [100개 세부종목] | 당구, 볼링, 체스·바둑 & e스포츠, 댄스스포츠, 풋살, 실내 카바디, 킥복싱 & 무에이, 크라쉬, 25m 쇼트코스 수영

*2013 인천실내·무도[武道]아시아 경기대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테스트이벤트 대회임.

주최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주관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3 **4**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의 못다 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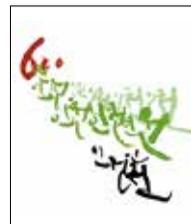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 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 보기 기능은 태블릿 PC에서만 가능)

Cover Story



어떻게 참았을까요.
무한한 생명에너지 그리고 불.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생명이
대지를 초록으로 물들입니다.
올해는 인천정명 600년
시민의 에너지를 모아
무한성장을 향해 지금 달려갑니다.
김기춘 作_m.010-5131-3146



08



12



16



30



52

CONTENTS

- 08 사월 풍경 화도진
- 12 Dynamic Incheon 인천국제축구구민
- 16 봄 특집 꽃차
- 22 포커스 사회적은행 '함께하는 사람들'
- 24 Tasty, 인천 오래된 동네 빵집
- 28 아름다운 사람 '아빠와 크레파스' 양현경
- 30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밥집 '송미정'의 복 중탕
- 34 Culture News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 외

- 38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시대의 인천
- 40 시정뉴스 노벨수상자, 인천 강단에 서다 외
- 44 의정뉴스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선 주민간담회 외
- 46 생활정보 울목도서관 문화예술 행사 외
- 50 이달의 서평 인생의 여백을 사랑하라 외
- 51 인천 사는 이야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갈매기 외
- 52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자유공원
- 58 모닝 커피 한잔 이성진 인천골목문화지킴이 이사장

08 화도진의 하얀 봄

진영(鎭營)에 꽃이 피었다. 봄이 왔다. 봄이 와서 꽃이 핀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 봄이 된 것이다. 우리 인천에는 웅장한 궁궐이나 대궐이 없다. 화도진은 웅(雄)하지도 장(壯)하지도 않지만 우리 고유의 건축미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다.

38 그 타임캡슐엔 벚꽃 앞도 들어 있으리

자유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다. 70년대 말까지 만해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인천에 놀러 왔다는 '인증샷'의 단골장소였다. 그 당시 시내에서 결혼식을 막 끝낸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자유공원에 올라와 포즈를 취했다.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인천과 통(通)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보고 느낀 점, 평소 인천에 대한 생각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1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blog.naver.com/flyic)

social network
twitter
me2day
blog
facebook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스토리'가 있는 인천

독자 김숙연(37 · 효성동)

구도심의 숨결 가득

인천의 조화로운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굿모닝인천>에서 신도시뿐 아니라 구도심 구석구석의 숨결까지 전해주어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얼마 전 접한 우각로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곧 변화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박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에서 인천의 골목골목을 열어주세요.

박현주 남구 토금남로

잊고 살던 소중한 것을 일깨워

<굿모닝인천>은 늘 잊고 살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음식물처리 과정에 대한 기사를 읽고 '평소 분리수거를 꼼꼼히 한다고 하는 데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구나' 하고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도시형 식물농장에 대한 글도 잘 읽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송림 아뜨렛길에 가 '둥이네 다량채'에 꼭 들려야겠습니다.

한혜숙 남구 수웅로

시민 참여 콘텐츠가 풍부해졌으면

인천에는 갈 만한 여행지와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굿모닝인천>에 시민 참여란을 더 많이 만들어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듯 <굿모닝인천>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인천은 물론 타시도 사람들도 인천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임현범 동구 우각로

매화를 닮은 인천이 좋아

봄이 왔습니다. <굿모닝인천> 봄호에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소식을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정성 어린 글. 모든 사람이 <굿모닝인천>을 접하고 가슴 따듯해지길 바랍니다.

이정숙 부평구 이규보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주세요

저는 장애인을 가르치는 체육교사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인천의 곳곳을 다니다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맘 놓고 편히 다닐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주세요.

안영국 남동구 함박외로

여기는, 인천 유일의 대학가

<굿모닝인천>에서 인천 유일의 대학가인 인하대 후문 주변에 대해 다룬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우리 딸이 올해 대학에 가서 더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대학생들과 향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박점숙 서구 건지로

김숙연씨는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위치한 인천종합관광안내소에서 관광객에게 인천을 안내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이야기를 토대로 인천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는 고마운 이다.

내게 인천은 강화도에서 태어나 지금도 인천에 살고 있다. 인천은 내게 있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정든 곳. 가장 편안한 안식처다.

인천의 이야기를 알리다 인천종합관광안내소에서 8년째 인천을 알리고 있다. 인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단순히 볼거리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있다. 스토리가 있으면 여행의 감동이 더 하다. 실제로 여행을 마친 후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분들도 많다.

<굿모닝인천> 어떤 점이 좋아 업무상 인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굿모닝인천>이 좋아 늘 챙겨본다. 중요한 부분은 펜으로 표시하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볼 정도다. 인천에 살면서도 관심이 없으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일깨워 줘서 좋다.

인천을 찾는 분들에게 인천에 볼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개항기를 비롯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나면 인천이 얼마나 많은 매력을 품은 도시인지 알게 된다. 실제로 외국인들도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도시의 발전상과 더불어 인천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과 통하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 인터뷰**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어디일까요** 사진 속 인천의 명소를 맞춰보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재래시장상품권 1만원권 1장, 인터뷰는 3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여기가 어디?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니하오 여기는 '한국 속 작은 중국'입니다.

※ 네 분을 선정하며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지난 호 정답자

남인숙 중구 신포로 / 최현미 남동구 용천로
김범일 서구 장고개로 / 박찬숙 동구 화도진로



청라와 관련해 호재가 많다는 데 실상 이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타운, 시티타워, 로봇랜드, 신세계 등의 사업의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하나금융타운은 실무협의를 마치면 곧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시티타워는 LH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실시단계 중으로 곧 기공식이 있을 예정이며, 청라신세계 교외형복합쇼핑몰은 오는 201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 데, 인천시 관내 학교에서 하는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이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관내 학교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학교별 새 학년 적응기간으로 야간자율학습을 2~3주 가량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라고등학교 앞에 정류장만 있고 정작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4월 1일부터 46번 버스가 청라고등학교 앞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야시간대 병무청 앞 도로에 화물차가 위험하게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시정조치 해주세요.

해당지역의 심야시간대 불법주정차는 남구청 소관으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단속 강화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극장에서 세 쌍둥이 이야기를 보았는데, 인천분이네요. 반가움보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육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세 이하 필수예방 무료 접종, 아이모아 카드 발급, 영유아 건강검진,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4-1번 버스노선을 폐선하지 말고, 수인선 논현역과 호구포역을 경유하도록 하는 게 어떨지요. 탑승하는 승객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754-1번(이달 5일까지 한정면허) 버스는 1회 운영 시 평균 1명이 탑승하여, 노선조정위에서 버스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근에 51-1, 52-2, 35번 버스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승객의 수요에 따라 노선 추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화도진의 花島鎭

하얀 봄

진영(鎭營)에 꽃이 피었다. 봄이 왔다. 봄이 와서 꽃이 핀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 봄이 된 것이다. 우리 인천에는 웅장한 궁궐이나 대궐이 없다. 화도진은 웅(雄)하지도 장(壯)하지도 않지만 우리 고유의 건축미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다. 태생이 '꽃섬'이었다는 것을 몸부림치며 알리기라도 하는 듯 사월이 되면 화도진 영내에는 순백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글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花島鎭

인천 앞바다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배들이 자주 나타났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외국 함대와 상선 등 이양선(異樣船)들이었다. 그것들이 자주 출몰하자 조선정부는 고종 16년(1879)에 강화도에서 캐 온 돌로 화도진(花島鎭)을 구축했다. 묘도(만석동)포대, 호구(논현동)포대 등 인천 해안선을 빙 둘러싼 포대들을 예하부대로 둔 야전사령부 역할을 했다. 당시 진지는 소나무 숲으로 뒤덮였고 바로 밑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왔다. 화도진 언덕에 올라서면 영종도와 작약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짱! 짱!~ 고종 19년(1882) 4월 6일(양력 5월 22일), 지축을 뒤흔드는 대포소리가 앞바다에서 들려왔다. 바다에 떠 있던 미국 스와타라함에서 21발의 축포를 쏘아댔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된 것을 알리는 대포였다. 조약체결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화도진 언덕에서 진행되었다.



화도진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군제가 개편됨에 따라 폐쇄됐고 일제강점기 때 인근지역이 매립되면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췄다. 100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1988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화도진도'를 토대로 복원됐다. 한 세기 전의 그날처럼 화도진 동헌마당에는 오늘, 봄 햇빛 한 줄기와 봄 꽃잎 한 장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필드 위
푸른 눈동자

인천의 이름으로 슛을 날리다

꽃샘추위가 시샘하던 3월의 어느 주말, 중구국민체육센터에서 '서울 외국인 축구리그(Seoul Sunday Football League, SSFL)'가 열렸다. '인천국제축구팀(Incheon Internationals FC)'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부, 2부 총 17개 축구단이 참가해 열전을 벌인다. 우승컵은 단 하나, 국제축구팀은 인천을 향한 자긍심과 열정으로 승리를 이룰 것이다. 인천 바다를 힘차게 넘실대게 한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임윤석 자유사진가



PM. 3:00~4:00

'서울 외국인 축구리그(Seoul Sunday Football League, SSFL)'의 봄 시즌 세 번째 경기가 열린 지난 3월 17일, 중구국민체육센터에 인천을 대표하는 용사들이 모였다. "상대팀 '서울 한강 스피트 파이어스'는 어린 선수들이 많은 만큼 빠르고 강해서 집중적으로 마크해야 합니다. 노련함으로 승부를 겁니다!" '인천국제축구팀(Incheon Internationals FC)'의 선수이자 감독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김(David Kim)의 응원에 더욱 힘을 얻은 축구단. 바람을 가르며 운동장을 뛰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며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오늘을 기다렸다! 최선을 다해 뛰어 보자!

PM. 4:00~6:00

드디어 결전의 시간. 상대팀의 기선을 제압하는 힘찬 파이팅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K3 리그에서 뛰 채수열과 미국에서 온 브라이언 위만(Brian Wiemann) 등이 오늘 경기에서 활약을 기대하는 선수다. 과연 리그 상위권의 우승후보 팀답다. 주전 선수들이 부상 등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경기시작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장을 누빈다. 힘이 넘치는 노련한 플레이, 공격수와 수비수의 활약이 대단하다. 결정적인 골 기회도 여러 번.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겨가고 만다. 응원석에서 아쉬움의 탄성 소리가 터져 나온다.

선수단의 기량과 팀워크가 돋보인 경기였지만 전반전은 0대 0 무승부로 끝났다.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어진 후반전. 얼마 지나지 않아 패드 레이그(Pad Raig) 선수의 발끝에서 솟은 공이 힘차게 골문을 뒤흔들고, 1대 0으로 인천이 이겼다!



PM. 6:00

승리의 여신은 인천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땀에 흠뻑 젖도록 달린 선수들의 모습에서, 그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경기에 이겨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인천과 팀의 영예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뛰 상대팀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양 팀 선수들을 격려하는 감독의 말에 따뜻한 스포츠맨십이 느껴진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인천이란 이름과 동료애를 품고 함께 달린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리고 우승을 향해 힘차게 숨을 날릴, 내일을 약속했다.

필드 누비며 인천을 알리다

인천국제축구팀

인천에 사는 외국인들을 주축으로 한 ‘인천국제축구팀’은 지난 2000년 창단해 현재 미국, 영국, 모로코 등 6개국 25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2002 한일 월드컵으로 축구 붐이 일자 ‘서울 외국인 축구리그’를 만들기도 했다. 인천국제축구팀은 현재 1부 리그에서 상위권으로 활약하고 있다.

아마추어 리그이긴 하지만 팀원 대부분이 대학 축구팀에서 뛰고 세미프로 선수들도 있을 만큼 실력이 수준급이다. 벤 먼로(Ben Munro) 선수는 다른 팀의 경계대상 1호. 영국의 명문 리버풀 청소년(Liverpool FC youth) 팀에서 뛰고 미국의 축구명문대학 제임스 매디슨 대학(James Madison University)을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K3 리그를 종횡무진 누빈 채수열 선수도 팀의 에이스. 이번 경기에서도 전후반 내내 미드필드를 장악했다. 만형 함동섭 선수는 창단 이래 지금까지 팀의 역사와 함께 했다.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에너지가 넘친다.

인천국제축구팀이 활동한 지 어느덧 13년, 그동안 인천의 이름을 걸고 전국 각지에서 시합을 했다. 언젠가는 시에 정식으로 팀이 등록되어 인천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 인천을 가슴에 품고 푸른 필드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차잔에 담긴,

이 봄...

빨강, 노랑, 하양, 분홍... 고운 빛의 봄꽃이 차잔 가득 피었다. 물빛 머금은 고운 꽃송이 위로 나비가 하늘하늘 날아들 듯, 봄이 살포시 내려앉을 듯... 눈으로 한 모금 향으로 한 모금, 가만히 이 봄을 음미한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훈 자유사진가
촬영협조 꽃차연구원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햇살로 바람으로 향기로 맛으로, 봄은 오감을 자극하며 다가온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꽃. 아카시아 꽃 타래를 훑어 한입에 털어 넣던 추억, 허끝에서 감도는 봄의 기억은 다디달다.

꽃은 보기에 아름답고 향기로울뿐더러 미네랄과 단백질,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보아도 먹어도 좋을 꽃이 차로 더 감미롭게 변주되고 있다. 물론 모든 꽃을 차로 만들 수는 없다. 매화, 산수유, 개나리 같은 이른 봄꽃은 대부분 독성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에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체로 향이 강하고, 씹싸래하거나 떼떠름한 맛이 나는 꽃은 식용으로 알맞지 않다.

꽃차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제대로 빛어낼 수 있다. “꽃을 말리지 않고 고온에서 덥고 식히길 여러 번 반복해야,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을 꽃차와 함께해 온 꽃차연구원의 위타점 원장은, 덕음이 잘된 꽃차는 세월이 지나도 그 맛과 향이 깊디깊다고 전한다.

햇살 가득한 봄, 벚꽃 가득 핀 차 한잔을 마신다. 입 안에 퍼지는 은은한 기운, 싸한 향이 슬쩍 감돌다가 씹쌀한 맛이 비친다. 눈으로 한 모금 향으로 한 모금, 가만히 이 봄을 음미한다.



꽃을 따다

화원에서 파는 꽃은 농약이나 성장촉진호르몬이 들어 있으므로, 먹는 꽃을 전문적으로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의 식품관 등을 이용한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피기 직전의 봉우리나 갓 피어난 꽃을 따거나, 씨앗을 사서 꽃으로 직접 길러도 좋다. 꽃차로 만들기 좋은 봄꽃으로는 매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짙레꽃, 생강나무꽃, 장미, 민들레 등이 있다.

꽃이 피다, 접시 위, 워

차 외에도 식탁 위 꽃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샐러드, 샌드위치, 필라프, 비빔밥 등 음식의 재료로 쓰거나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장식해 식탁 위를 아름답게 물들이자. 편지나 에이드 등의 차가운 음료에 넣거나 꽃으로 얼음을 만들어 넣어 즐겨도 색다르다.

花



꽃을 더다



보통 말린 꽃은 한철이 지나면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기 마련. 꽃을 말리지 않고 잘 더어야 고유의 맛과 향, 빛깔을 유지할 수 있다. 꽃을 더는 법은 꽃의 종류와 피는 시기에 따라 다 다르다. 인천꽃차연구원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을 채취해 더움으로 꽃차 만드는 과정을 가르친다.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꽃차 소믈리에 1급 및 2급 자격을 수여받을 수 있다.

인천꽃차연구원 010-7335-4570, cafe.daum.net/i-ftc

봄 품은, 꽃차 2선

생강나무꽃차 노란 생강나무 꽃은 효소와 차의 재료로 쓰인다. 사찰과 민간에서 '치유의 꽃'으로 이르며 주로 타박상과 골절을 치료하는 데 썼다. 달보드레한 향이 은은히 퍼지다 맵싸한 생강향이 살며시 기분 좋게 자극한다. |만들기| 하나, 가지에서 꽃잎을 하나하나 따다. 돌, 팬에 찡호지를 깔고 그 위에 꽃잎을 올린다. 셋, 온도를 올리고 찡호지를 흔들어 온도를 조절하여 더는다. 넷,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서 완전히 식힌 후 반복하여 다 마를 때까지 더는다.

진달래꽃차 봄이 오면 화사한 분홍빛으로 마음에 파고드는 꽃. 예쁜 화전으로 꽃차로 만들어도 좋을 진달래는 혈액순환을 돕고 감기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른 은은한 향이 매력적이다. |만들기| 하나, 진달래는 꽃 봉우리를 따서 준비한다. 돌, 팬에 찡호지를 깔고 온도를 올린 후 꽃을 놓는다. 셋, 꽃이 따뜻해지면 뒤집고 팬이 식으면 내려 식힌다. 넷, 더움과 식힘 과정을 반복하여 꽃을 완전히 말린다.



그곳에 가면,

입 안에 꽃구름이 인다

꽃구름이 번지고 있다. 노랑, 빨강, 분홍... 꽃들이 따사로운 햇살에 하나 둘 꽃망울을 터트린다. 일 년 중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저 꽃을 따다, 찻잔에 담는다. 잔이 닿은 입술에 입 안에 꽃구름이 번진다.

다락

아홉 번 뒤어 꽃 피우다

대불호텔터 길 건너편에는 아담한 전통찻집 '다락'이 있다. 살포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시골집에 놀러 온 듯 정겨운 풍경이 펼쳐진다. 따사로운 감촉의 나무마루에 키 작은 테이블이 놓인 아늑한 공간은, 삶에 한줄기 휴식을 선사한다.

차에 조예가 깊은 주인 강경화씨는 우리나라는 물론 가까이 중국과 일본부터 멀리 유럽 프랑스까지 다양한 나라의 전통차를 정성껏 마련해 놓았다.

특히 매화, 목련, 찔레꽃 등 봄꽃을 비롯해 스무 가지에 이르는 꽃으로 만든 차는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메뉴. 차이나타운을 찾은 젊은이들이나 일본·중국 관광객들도 찻집에 들리면 꼭 찾곤 한다. 꽃차는 초연다도교육원의 박영혜 원장이 아홉 번 정성으로 뒤어 본연의 향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것이다. 찻잔에 담긴 꽃을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기며, 이 봄을 깊이 들이마신다.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꽃차의 가격은 5천원 대로 예쁘게 포장해서 판매도 한다. 766-9557



화수분

마음이 절로 향기로워라

세상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떨어진 고요한 찻집. 예서라면 세상사 잠시 잊고 몸과 마음을 누일 수 있으리라. '화수분'은 분위기만큼이나 음식 맛도 정갈하다. 메뉴는 소박하고 가짓수도 많지 않지만, 화학조미료 없이 효소로 맛을 내며 강원도에서 난 깨끗한 재료를 쓴다.

스무 가지에 이르는 전통차는 대추, 연잎, 매실, 모과, 오디 등 몸에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다디달다. 목련, 매화 등 봄꽃을 비롯해 대어섯 가지 꽃으로 만든 꽃차도 음미할 수 있다.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꽃이 은은히 피어나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음이 절로 향기롭다. 맘씨 좋은 주인 김순자씨는 차 한 잔을 시켜도 두어 가지를 넉넉히 우려 내온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시나마 팍팍한 삶에 여백을 그렸으면, 하는 것의 그의 바람. 그 마음으로 가게 한편에 작은 갤러리를 열고 주말에 캘리그래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꽃차의 가격은 6천원 대다. 070-4103-6086

루나씨키친

찻잔에 담긴 중국

'루나씨키친(Lunar氏Kitchen)'은 차이나타운 최초의 중국식 밀크티 전문점. 곳곳에 녹아든 역사와 삶의 흔적을 좇던 길, 잠시 마시는 차 한잔이 더없이 감미롭다. 여행 삼아 차이나타운을 찾곤 했다는 염성훈씨는 3년 전, 짜장면집들 사이에 오롯이 카페를 열었다.

그는 중국에서 공수해 온 귀한 차로 본토의 맛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용주화차(龍珠花茶)는 최상급 재스민으로 빛은 중국의 꽃차. 맑으면서도 기품 있는 향이 입 안을 황홀경으로 이끈다. 중국 전통식으로 우려 낸 장미차도 맛과 향이 한층 깊고 풍부하다. 철관음, 팔보차, 보이차 등 최고급 중국차도 함께 음미할 수 있다. 특히 찌주나이차는 밀크티(나이차)에 타피오카 떡(찐주)을 넣어 즐기는 중국 고유의 음료로 인기가 가장 높다.

• 영업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주말은 8시까지며 월요일은 쉰다. 차의 가격은 4,5천원 대. 766-0734

모든 점포에

'대박신화' 쓴다

자활의지도 있고 창업능력은 있지만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사회적은행 '함께하는 사람들'은 대안금융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창업에 대한 굳은 의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에 문을 두드리보자.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청라싱싱해물, I-블랙박스 등 창업자금 지원 받아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청라싱싱해물(대표 문정운)은 사회적은행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원한 창업 3호점이다. 아귀, 해물찜 전문식당이다. 올해 1월에 오픈해 청라지역에서 기반을 닦고 있다.

문정운(48)대표는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창업의 꿈을 꺾지 못하다가 1천원만을 지원받았다. 4년만기 연리 2.5%의 저리다. 문 대표는 창업을 위해 1년간 청라지역 상권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깃집은 많은데 해물집이 두 군데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물집으로 창업을 결정했다.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전문요리사를 소개받아 해물·아귀요리 비법을 전수받았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영업상태, 애로사항, 홍보 등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I-블랙박스(대표 김민경)는 블랙박스 장착, 선팅, 차량시트 개조, 내비게이션 장착 등 자동차용품 토털 서비스업체다. 서구 가좌동 자동차 매매단지 M파크에 있다. 10월 오픈했고, 창업지원 4호점이다. I-블랙박스 성락근(36)사장은 오랫동안 중고차 매매일을 했고, 자동차용품 회사에서 장착, 개조 서비스를 배운 기술자다. I-블랙박스를 창업한 후 중고 딜러 경력이 장점이 되어, 두 달 만에 안정적인 매출에 들어섰다.



사회적은행은 매월 창업점을 방문, 창업자의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 사장은 우연한 기회에 사회적 은행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자신이 가진 기술과 영업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비록 몸으로 일하는 직업이지만 젊은 후배들이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창업자 어려움, 막힌 곳 소통시켜 주는 역할

사회적은행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한 가계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자활의지가 높은 창업지원자를 선정하고, 창업한 후 가게의 영업, 마케팅, 홍보까지 지원한다.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막힌 곳을 소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창업지원대상은 창업능력은 있으나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다. 창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시설투자 비용이 적은 업종이 우선 대상이다.

작년 7월 함께하는 사람들이 창립한 이래 현재까지 6곳에 창업 자금이 지원됐다. 1호점 한나래(페인트 도소매), 2호점 울치킨, 3호점 싱싱해물탕, 4호점 I-블랙박스, 5호점 힐링담 상담연구소, 6호점 에스에이우드(건축목공자재 도소매) 등이다. 작년 12월까지 101명에게 예비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현재 6호점까지 창업이 이뤄졌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주고자 서민창업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출범, 각 기관의 장점과 기능을 살려 교육참여자를 지원한다. 또 더 많은 이웃들을 돕고자 기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일정액을 기부하는 코어하트(Core Heart)회원과 마중물 회원, 재능 기부 회원 등이다. 올해는 5억원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873-3800

창업하고 싶다면, 문을 두드리세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이 창업지원자를 기다린다. 창업에 관심이 있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인천시내에 있는 만 20세 이상 인천 거주자로, 최저 생계비 200% 이내인 저소득층 해당자, 실직자, 장애인, 한부모가장,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이다. 선정기준은 사전심사, 자활의지, 교육·훈련, 동의, 경영능력 등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자체자금 조달능력, 상환의지를 보고 판단한다. 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4년만기(4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다. 이자율은 연 2.5%다. 상담 및 접수는 수시로 이뤄지며 심사 후 선정까지는 3~4주 가량 걸린다.





소보로빵, 깨찰빵,
팔빵 먹어봤니?

동네빵집 맛도 전통도 '빵빵'

골목길 모퉁이 빵가게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빵 냄새. 아침에 갓 구운 바삭바삭하고 연기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빵 맛은 잊기 어렵다. 빵은 밥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하루도 빵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빵마니아들에게 빵은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을 넘어 열광의 대상이다. 인천에도 풍미 좋고, 향긋한 빵을 만드는 오래된 동네빵집이 여럿 있다. 대기업이 만든 프랜차이즈점들이 우후죽순 생기지만 동네빵집은 늘 푸근하고 아늑한 동네 사랑방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빵굽는 셰프 소박하면서 맛 좋은 빵

오전 9시.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빵굽는 셰프’는 빵 만드는 손길로 분주하다. 오전 7시부터 단팥빵, 소보로빵, 야채고로케, 식빵 등 당일 판매하는 빵을 만들고 굽느라, 조병현(46)대표는 계속 밀가루를 치대고 빵 반죽에 고명을 얹고 있다. 정오까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빵굽는 셰프’는 14년째 이곳에서 맛있고 고소하며 쫄득한 빵을 내고 있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소박하고 푸근한 동네빵집이다. 이곳은 40여 년 전부터 빵집터였다. 다사랑 베이커리, 불란서 베이커리 등 이름과 주인만 바뀌었지 빵집의 명맥은 계속 이어졌다. 손님이 빵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방을 오픈한 것이 특징이다.

빵값은 세일을 많이하는 인근 대형마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500원부터 시작한다. 이곳 빵은 원도심의 느낌과 많이 닮았다. 데코레이션도 색깔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맛보았던 빵들이 눈에 많이 띈다. 버터크림빵, 소보로빵, 팔빵, 깨찰빵, 베이비슈 등. 빵굽는 셰프에도 2년 전 ‘위기’가 있었다. 목이 나쁘지 않다보니 체인점이 들어오려고 압력을 넣은 적이 있었다.

조 대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5~6시까지 빵을 만들고 밤 12시까지 빵집 문을 연다. 고된 노동이지만 더 맛있고 좋은 빵을 많이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문의 : 883-4918





쁘송 32년 제과 기술 달인이 만든 영양가득 한 빵
 쁘송은 남구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5차 상가에서 빵을 내고있다. 김대식 (52)사장은 이곳에서만 13년째 빵을 굽고 있으며 송도역에서도 10여 년간 빵집을 운영했다. 32년간 제과제빵 기술을 갈고닦은 달인이다. 이집에서 제일 잘나가는 빵은 천연쭈쭈쌀빵, 고구마빵, 황남빵, 단호박빵 등으로 거의 3~4천원대 가격의 상품들이다. 특히 밀가루가 아닌 쌀로만든 카스테라는 소화력이 좋고 부드러워 인기만점이다.

23년 전 첫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만들었던 소보로, 찹쌀도너츠, 단팥빵은 아직도 만든다. 재료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견과류 등을 넣어 변화를 주었지만 옛 맛을 그대로 살려 나이드신 어른들이 즐겨 찾는다. 이 집의 빵에는 방부제가 일체 들어가지 않으며, 영양이 듬뿍 들어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다. 쁘송은 프랜차이즈들과의 경쟁하기 위해 빵을 구매하면 10% 할인 쿠폰을 주고, 8천원 이상 제품을 살 땐 롤릿을 돌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빵집은 아침 6시 30분에 문을 열어 밤 12시 30분까지 영업한다. 젊은날부터 혼신을 다해 빵집을 키워온 김 대표는 쁘송을 빵만 파는 가게가 아닌 향긋한 빵과 커피가 함께 어우러진 가게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의 : 866-8519



쉐 라 메르 빵 맛으로 유명 체인점에 '바리케이트'
 쉐라메르(Chez la mère)는 부평 산곡동 경남아파트 2차 상가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올해로 23년째 빵을 굽고 있다. 홍순기(57)대표는 젊은날 서울의 유명 빵집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익혔고 총책임자였다. 23년 전 산곡동에 빵집을 차렸을 때도 건너편에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빵집이 있었다. 당시에 유명브랜드 빵집들이 잘 될 때여서 이곳에 빵집을 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렸다. 하지만 홍대표는 빵 만드는 기술만은 누구보다 월등하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새벽 6시에 빵을 만들기 시작해 밤 12까지



일했다. 빵맛의 차이가 확실했다. 냉동빵보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즉석빵에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는 요즘 유행하는 체인점이 바로 앞에 들어섰지만 이 집 빵맛에 밀려 철수했다. 빵맛으로 이 지역의 바리케이트를 친 셈이다.

쉐라메르는 250여 가지 빵, 과자, 케익 제품을 판매한다. 하루 2~3회 빵을 구워낸다. 이집은 일반 빵집에서는 맛보기 힘든 유럽 빵을 유럽빵의 풍미와 식감을 오롯이 만들어내는 특수오븐으로 구워낸다. 달지않은 담백한 빵을 올리브유, 식초, 발사믹을 첨가해 만든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고소하다. 찹쌀도너츠, 파배기, 팔빵, 슈크림, 소보로 등 전통적인 빵도 달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다. 홍 대표는 빵맛이 확실하면 손님들은 몰리게 되어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문의 : 523-0404



빵은 당일판매가 원칙으로 팔다 남은 빵은 푸드뱅크로 보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한다.

까레몽과자점 '하루의 맛'으로 이웃과 만나
 '하루의 맛'. 중구 화평동 화평우체국 옆에 위치한 까레몽과자점의 캐치프레이즈다. 매일매일 나오는 따뜻하고 영양좋은 빵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다. 까레몽이 있는 자리는 20여 년 전 김충렬 베이커리로 시작해 10여 년 전부터 까레몽으로 상호를 바꿔달았다.

현재 까레몽을 운영하는 박대현(37)대표는 15년간 까레몽에서 일했고 1년 전 가게를 차렸다. 빵은 당일판매가 원칙이다 보니 팔다 남은 빵은 푸드뱅크로 보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한다. 매일 매일 나오는 까레몽의 빵은 달지 않고 식감이 좋으며 부드럽다. 그래서 빵맛에 관한 자부심이 높다. 까르몽도 체인점과 경쟁하고자 한 달에 일주일씩 한 품목을 정해 50% 할인 행사를 하며 손님을 모으고 있다.

문의 : 772-1129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화수분처럼 샘솟는 그녀의 음악열정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어젯밤에 우리아빠가 / 다정하신 모습으로 / 한손에는 크레파스를 / 사가지고 오셨어요(중략)’. ‘아빠와 크레파스’는 85년 동요같은 대중가요로 아빠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 노래는 80년대 대중가요를 이끈 배따라기 멤버 양현경씨의 첫 솔로곡이다. 양씨는 송림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까지 인천에서 살았고, 지금은 학익동에서 70,80 라이브카페 ‘열린음악회’를 운영하고 있다.

30여 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빠와 크레파스’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려진다. 사실 ‘아빠와 크레파스’는 양현경씨의 이야기다. 왕자표 크레파스를 갖고 싶었던 소녀는 아빠에게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졸랐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다. 몇 달이 지나도 크레파스는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거나하게 술에 취한 아빠가 크레파스를 사갖고 온 자신의 어린시절 애가(哀歌)다.

양씨는 어렸을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으나 높은 음이 안 올라가 가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노래는 계속 불렀고, 어딜가나 ‘노래 잘하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던 차에 기회가 왔다. 80년 초 남이섬에서 열린 라디오 공개방송 ‘아마추어 통기타 노래자랑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DJ 이종환이 운영하던 ‘셀브르’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이종환이 운영하던 셀브르는 당시 가수지방생들의 꿈의 무대였다.

셀브르에서 노래하면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가수 이진관씨의 소개로 배따라기 이해민씨를 만나면서다. 이해민씨는 ‘그댄 봄비를 좋아하나요’를 함께 부를 여성멤버를 찾던 중이었다. 양씨는 ‘그댄 봄비를 좋아하나요’를 들으면서 ‘나는요’하는 가사에 진율을 느꼈다. ‘나는요’ 부분만 부르게 해달라고 작곡가에게 매달리고 울었다. 그런 사연과 우여곡절 끝에 곱고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양씨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댄 봄비를 무척좋아 하나요 / 나는요 비가오면 / 추억속에 잠겨요 / 그댄 바람소리 / 무척 좋아 하나요 / 나는요 바람불면 / 바람속을 걸어요(중략)’. “가수생활을 하면서 이름은 얻었지만 돈과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도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 희망과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양씨는 TV나 가요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도 가수의 길을 접은 적은 없다. 가수생활에서 다 하지 못한 열정은 라이브카페에서 뿜어낸다. 밤 10시부터가 그녀의 독무대다. 무대에서 음악을 하다 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양씨. 그녀는 올해도 새 음반을 준비하며 더 큰 음악인생을 꿈꾸고 있다.



50년 이어 온

농익은 복국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취한 다음날은 으레 연수구나 남구 쪽 국밥집으로 나가 속을 풀곤 했는데 그날은 배다리 송미정(松味亭)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 아주 오랜만에 술에 다친 속을 편안하게 다독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송미정애를 가게 되었다.”는 어투가 되고 만 것은 그동안 이 집을 전혀 기억 속에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구세(區勢)가 쇠퇴하면서 내로라하던 음식점들마저 다 타치로 떠나간 터라 이 집 역시 머릿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날 아주 우연히 송미정에 들렀다. 그 우연은 기실 전날의 객기에 연관한다. 봄날의 갈피를 못 잡은 주광(酒狂) 셋이서 전날 밤새 주정(酒井)에 빠져 있었던 것.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각자 숙소로 퇴각했는데 고작 서너 시간 눈을 붙였을까. 이쪽보다는 훨씬 체력이 좋은 후배 하나가 일찍 깨어나 해장을 하자고 전화를 한 것이다.

다친 속 풀어주는데 된장 된 중탕 제격

외지 출신인 그가 택시를 타고 다시 내 쪽으로 오는 도중 우연히 기사로부터 들은 바가 바로 송미정의 복국이었다. 도착 전에 그는 한번 더 내게 전화를 해 기사로부터 들은 송미정을 물었고, 나는 그때 문득 잊고 있었던 이 반가운 상호를 기억해 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숙취에 절은 몸을 이끌고 실로 오랜만에 가 앉았던 것이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참으로 고즈넉한 기분까지 느꼈다.

토요일 오전, 아직 손님이 뜰해서인지 주방 남자가 직접 들어와 우리 얼굴을 보며 조심스레 중탕을 권했다. 그냥 앉아 있으면서도 진땀을 흘릴 듯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운탕보다도, 또 ‘지리’보다도, 적당히 된장을 풀어 끓인 중탕을 내는 게 적합할 것이다. 매운탕은 칼칼해서 입에는 괜찮은데 다친 속에는 다소 부담이 간다. 지리는 소화기의 기력이 크게 쇠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심심하다.

넓직한 냄비 속에서 데쳐진 미나리, 썩갠 우선 건져 먹고 뒤따라 푹 우려난 국물을 몇 숟가락 들이켜니 이내 몸이 ‘활짝 풀리고’ 속이 누그러진다. ‘풀린다’는 표현은 고 신태범(愼兌範) 박사께서 생전에 집필하신 <인천근해 어물세기> 중에 복어에 대한 설명 대목에서 나온다. “요즘 대중식사로 잔 복어로 끓인 매운탕이 성행하고 있다. 구수한 복찌개 한 그릇이면 몸이 활짝 풀린다고 한다.”

시원한 복국의 마력을 한마디로 참 간결하게 표현하셨다. 예전엔 이런 국물을 신포동과 하인천 부두 근처에서 흔히 맛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집 한 군데밖에 남지 않은 듯하다. 세





송미정을 개업한 고 광두삼 할머니(가운데) 가족

양식집 송미옥에서 출발, 1962년 복집으로 문패 달아

1959년,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 송미정이 문을 열었고, 어느덧 반 세기가 넘는 연륜을 헤아리게 되었다. 반세기라면 그럭저럭 노포(老鋪) 소리를 들을 만한 데, 그 세월 동안 송미정은 한결같이 좋은 맛을 냈고, 인천 사람들은 여일하게 발걸음을 했다는 뜻이다.

송미정은 지금 김현서(金顯瑞 68) 사장의 어머니 광두삼(郭斗三 작년에 작고)씨로부터 비롯된다. 광씨는 1·4후퇴 때 5살 현서씨와 현서씨 누이동생을 데리고 평양에서 피란을 나왔다. 수원을 거쳐 인하대학 자리 피난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지금 동구의 서흥 초등학교 건너편 한 셋집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북에 남은 채였다.

중학 학력이 전부였지만 재주 많고 강단과 부지런함을 겸비한 광씨는 당시 인천중공업에 고문으로 와 있던 독일인 기사의 식사를 맡아 하게 된다. 광씨의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7년간이나 중공업 주방에서 독일인 양식 수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양식 조리법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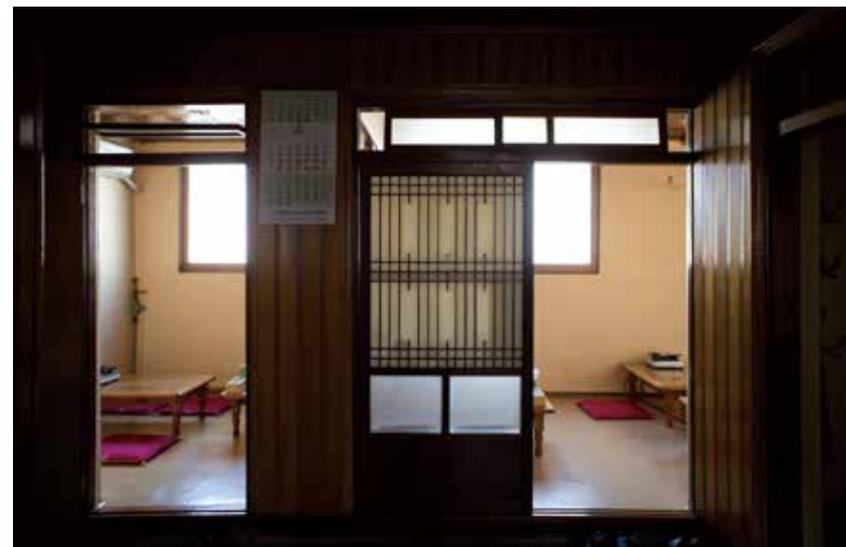
1959년 중공업을 나와 현 주소로 이사한 뒤 처음에는 양식집 '송미옥'(어머니 광씨의 작명으로, 현재도 영업 감찰에는 원 상호인 송미옥으로 되어 있다.)으로 문을 연다. 단출한 양식메뉴에다 우리가 선호하는 갈비찜과 오징어 그리고 생선초밥과 복요리를 추가했다. 당시 이런 비슷한 메뉴를 가진 곳이 신포동의 '화선장'이나 '미락' 같은 식당이었다.

월이 다 바뀌어 놓은 것이다. 사람 입맛도 음식도...

그래서인지 벽에 걸린 감사장, 표창장이 모두 옛날 것뿐이다. 장수영, 유병택, 김해두, 홍승순, 안찬희, 최기선 등 역대 시장들 명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 텔런트 박상민이 기억에 남고, 인근의 김관철 박사, 유완식 선생 등도 떠오른다. 그러나 두 분은 이제 고인이시다. 인하대 최원식 교수와 그 동기인 길병원 이태훈 원장이 종종 들르고, 최근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 맛에 심취했다는 말도 들린다.

동구 화도진로 5번 길 11-3, 배다리 중앙시장 동쪽 입구에 국민은행이 있고, 거기서 송림 초등학교 방향으로 몇 집 지나 다시 좌측으로 난 골목길로 들어서면 간판이 보인다. 굳이 소개할 것은 아니지만 보신탕을 파는 '깜상네'가 송미정 인근 서북 방향으로 있다.

이 일대가 지금은 사람이 다 나가 마치 빈 도시 같이 적막하고 쓸쓸하지만, 송미정이 여기에 자리잡을 당시는 인천서 가장 번화하던 곳이었다. 중앙시장 입구쪽에는 일제 때부터 인천의 일류 냉면집 '금곡루(金谷樓)'가 있었고 일대에는 청요릿집, 호떡집이 들어와 영업을 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었다.



30년 이상 사용한 생선회감용 칼들



히레스케 (데운 정종에 말린 복지느러미 넣은 술)



그러나 양식은 양식대로 또 갈비찜은 갈비찜대로 값이 만만치 않았고, 또 식당의 메뉴도 전문화하는 추세여서 다 치우고 오로지 복요리만 전문으로 선택했다. 그때가 1962년. 이 무렵에는 신포동에 '천미복집'이나 그보다는 좀더 대중적이었던 '향촌', '향원' 같은 복집이 성업할 때였다.

참복은 회감, 밀복은 탕과 튀김용

김 사장이 어머니의 후계자로 낙점을 받은 것은 1965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 제대 이후, 수산고등학교를 나와 세상 공부를 할 요량으로 인천판 유리에 입사해 몇 달 근무하다가 군대에 갔다 오고, 몇 년 뒤 복을 다루는 면허증을 취득하면서부터 온전히 가게를 맡게 된다.

송미정의 연륜이 쌓이면서 김 사장은 동구주민자치협의 회장 같은 직책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 인천시음식업조합 운영위원도 맡게 되고, 그의 무던한 인품은 연속해서 다문화가정 후원회장, 사이클연합회 회장 그리고 금성산악회 회장직도 맡게 한다. "아들애가 이걸 맡아 하겠다고 해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3대째가 되는데 생각 같아서는 백년, 이백년 내려갔으면 싫어요." 아들 상민(想民) 씨한테 맡기고 본인은 훌가분하게 바깥일이나 보면서...

새벽 4시부터 그날 쓸 물건을 다루다 보면 아침 8, 9시가 된다. 그래서 송미정은 점심과 저녁만 낸다. 참복은 그 창호지처럼 얇게 혀 위에서 녹는 회감으로, 밀복은 탕이나 튀김용으로, 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서 잡힌 것만을 쓴다. 배추, 무, 파, 마늘 고춧가루 등속은 모두 처가인 강원도 철원에서 청정(淸淨) 그대로 조달한다. 또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추장, 된장, 김장은 모두 손수 담근다.

이렇게 50년 넘게 식객의 배를 불리고 주객의 다친 속을 다정하게 다스려주었으니 가히 '착한 집, 좋은 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집이 3대 이상 유지되는 경우, 시나 구에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어 더욱 복돋운다면...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향기 I>

인천시립교향악단이 2013년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거장의 향기> 시리즈가 열린다. 청중들을 중독시키는 음악적 향기를 지닌 거장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이 기획은 올해 총 세 번 진행된다. 그 첫 무대인 4월에는 '색소폰 연주의 표본'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 온 색소포니스트 제롬 라랑이 함께 한다. 현재 프랑스 Aulnay-sous-bois 국립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인 그와 금년새 예술감독 이 이끄는 챔버오케스트라가 같이 들려줄 미묘의 '스카라무슈'와 피아졸라의 '탱고발레'는 관객들에게 경이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 17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00

커피콘서트 II <고재경의 마음콘서트>

4월 커피콘서트는 정확하게 계산된 속도도와 리듬에 기초한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관객과 만나는 마임이스트 고재경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한결 같은 꾸준함과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한 단순함, 뜨거운 열정이 매력적인 배우가 전하는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마임들이 관객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 것이다.



일시 : 17일(수)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00

연극 <미운남자>

제1회 함세덕 희곡상 수상 및 제2회 명작 코메디 페스티벌 초청작으로 문학성에 대한 평가를 입증 받은 김광탁 작가의 창작 희곡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중학교 교사인 아내와 실직한 지 5년이 된 남편의 여행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30~50대 부부 및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부부의 삶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킨다.



일시 : 26일(금)~27일(토) 26일 오후 7시30분 / 27일 오후 2시, 6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2만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00

책 읽어주는 조바니의 <카르멘>

세계적인 명작 카르멘을 다재다능한 배우들의 퍼포먼스, 모던한 무대, 알찬 구성과 스토리, 감각적인 음악으로 재구성한 연극이 인천 관객을 찾아온다. <책 읽어주는 조바니의 카르멘>은 원작 '카르멘'의 기본 줄거리를 따르되, 커피 집 주인 '조바니'가 등장해 책을 읽듯 차분하게 줄거리를 설명해준다. 피아노, 기타, 첼로, 붕고의 풍성한 선율과 스페인의 대표적인 춤 플라멩고, 매력적인 여인 '카르멘'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시 : 5일(금)~7일(토)

5일 오후 8시 / 6일 오후 4시, 7시 / 7일 오후 4시

장소 :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티켓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남동문화예술회관 453-5710

Exhibition
이달의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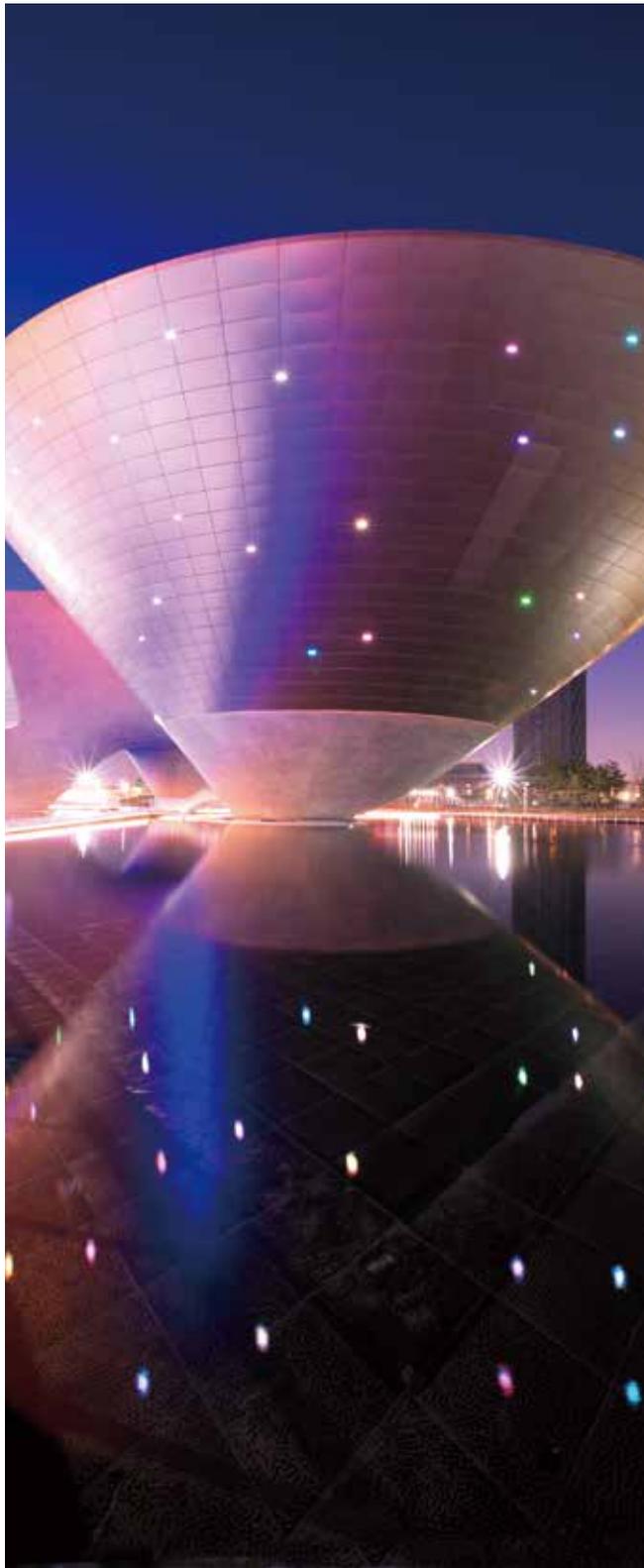
- ~4월 4일 제14회 그림나무 그림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14회 파레트 사랑 제1회 그림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4월 10일 제14회 제1회 김경자 서예 사군자 전시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4월 2일~4월 9일 카톨릭대-열여덟세의 드라마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남해영-꿈나무展(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 4월 5일~4월 11일 천해자, 이은솔 화예조형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Sun 아트 2012(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4월 5일~5월 12일 제1회 고경숙 서양화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4월 11일~4월 21일 부평아트센터 개관 3주년 기념전시 '조각에 귀를 기울이면'(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 4월 12일~4월 25일 김용운 도예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홀전시실)
- 4월 12일~4월 18일 미추홀의 빛(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23회 인천서예술연구회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4월 17일~4월 29일 인천 한국화협회展(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 4월 18일~6월 2일 어린이미디어아트 체험전(미디어+놀이터)(송도 트리플)
- 4월 19일~4월 25일 제4회 윤석범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일요사진회 제28회 정기회원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4월 25일~5월 4일 나이든 오빠의 충고(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4월 26일~5월 2일 중국 천진 서예작가 작품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전시실), 제5회 최윤정 서양화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제16회 인천교원사진 연구회 사진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꽃의 활초 변영덕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CALENDAR **04** PERFORMANCE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p>SUN</p> <p>4월 17일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향기 I></p>	<p>MON</p>	<p>TUE</p>	<p>WEN</p> <p>뮤지컬 <오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30분 전석 1만5천원 ☎한국예술경영협회 032-811-0560</p> <p>연극 '원치않은, 나혜석'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8시 / 2만원 ☎그린피그 032-760-1005</p> <p>어린이뮤지컬 '도깨비 난타' 사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 ☎032-580-1150</p>	<p>THU</p> <p>연극 '원치않은, 나혜석'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8시 / 2만원 ☎그린피그 032-760-1005</p> <p>어린이뮤지컬 '도깨비 난타' 사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 ☎032-580-1150</p>	<p>FRI</p> <p>서해바다 끝 이야기 '백제왕 경원과 조공수 판소리연희'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그린피그 032-760-1005</p> <p>개관 3주년기념 음악회(상생회 호모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p> <p>연극 '원치않은, 나혜석'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8시 / 2만원 ☎그린피그 032-760-1005</p> <p>로맨틱오페라 '사랑의 묘약'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032-505-5995</p> <p>책 읽어주는 조바니의 '카르멘'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8시 /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032-453-5710</p> <p>어린이뮤지컬 '도깨비 난타' 사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 ☎032-580-1150</p>	<p>SAT</p> <p>연극 '원치않은, 나혜석'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3시, 6시, 8시 2만원 ☎그린피그 032-760-1005</p> <p>책 읽어주는 조바니의 '카르멘'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4시, 7시,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032-453-5710</p> <p>어린이뮤지컬 '도깨비 난타' 사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1만 5천원 ☎032-580-1150</p>
<p>7</p> <p>이탈리안 앙상블 내한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고래 문도 070-4402-3102</p> <p>연극 '원치않은, 나혜석'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3시 / 2만원 ☎그린피그 032-760-1005</p> <p>책 읽어주는 조바니의 '카르멘'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4시 /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032-453-5710</p>	<p>8</p> <p>인천음악문화재단 제49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인천음악문화재단 032-429-0248</p> <p>제11회 남동구 문화예술회 무용작품공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인천남동문화예술회 032-422-0285</p> <p>타악 퍼포먼스 '아직'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032-505-5995</p>	<p>9</p> <p>인천아시안게임성공개최를 위한 제3회 화합의 연꽃향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1만원 ☎인천불교향채연합회 032-632-1131</p> <p>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0시30분 전석 1만5천원 ☎극단부울 02-2654-6854</p> <p>초록급 애니뮤지컬 '로보카 폴리'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032-500-2000</p> <p>트라이앵글 떠나는 클래식 여행 트라이블 오후 6시 / 무료 ☎032-760-6403</p>	<p>10</p> <p>인천아시안게임성공개최를 위한 제3회 화합의 연꽃향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1만원 ☎극단부울 02-2654-6854</p> <p>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0시30분 전석 1만5천원 ☎극단부울 02-2654-6854</p> <p>초록급 애니뮤지컬 '로보카 폴리'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032-500-2000</p> <p>트라이앵글 떠나는 클래식 여행 트라이블 오후 6시 / 무료 ☎032-760-6403</p>	<p>11</p> <p>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30분 전석 1만5천원 ☎극단부울 02-2654-6854</p> <p>초록급 애니뮤지컬 '로보카 폴리'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032-500-2000</p> <p>트라이앵글 떠나는 클래식 여행 트라이블 오후 6시 / 무료 ☎032-760-6403</p>	<p>12</p> <p>앙상블 오우스(노스폴더어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초록급 애니뮤지컬 '로보카 폴리'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단체관람), 오후 7시30분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032-500-2000</p> <p>클래식 '볼바'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4시 / 3천원 ☎-신포니에타 032-760-1005</p>	
<p>14</p> <p>SHEN YUN 201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30분 VVIP석 30만원,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신나타예술기획 02-583-6389</p> <p>뮤지컬(베로로와 도깨비소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5천원 ☎옴므기획 031-258-9054</p> <p>초록급 애니뮤지컬 '로보카 폴리'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단체관람), 오후 2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032-500-2000</p>	<p>15</p> <p>SHEN YUN 201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30분 VVIP석 30만원,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신나타예술기획 02-583-6389</p> <p>뮤지컬(베로로와 도깨비소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5천원 ☎옴므기획 031-258-9054</p> <p>초록급 애니뮤지컬 '로보카 폴리'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단체관람), 오후 2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032-500-2000</p>	<p>16</p> <p>제2회 라시어음악의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5천원, A석 2만원 ☎세실예술기획 02-583-6295</p>	<p>17</p> <p>제326회 정기연주회<거장의 향기 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p> <p>커피콘서트 II <고재경의 마음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클래식, 첼로에 빠지다(클래식 in 행)고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032-507-5996</p> <p>나-반음악소품 '별강리 사계 비발디' 북합문화공간아트홀 송동 오후 7시 / 1만 5천원 ☎032-834-1055</p>	<p>18</p> <p>TBN교통방송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공개방송 트라이블 오후 4시 / 무료 ☎032-760-1014</p> <p>음악과 함께 행복함 아침을 여는 브런치 콘서트 '코야모라스' 사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자율요금제 ☎032-580-1150</p>	<p>19</p> <p>제32회 정애인의 날 기념식 및 헌마음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 초대 ☎032-500-2000</p> <p>비블POP매직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4시 전석 2만원 ☎아이제이(세주) 1588-2341</p> <p>연극 '우동 한그릇'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짜리짜름 오후 4시 6천원, 학생 무료 ☎032-760-3457</p> <p>시립합창단 '정명000년 기념' 특별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초대 ☎시립합창단 032-420-2784</p>	
<p>21</p> <p>비블POP매직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아이제이(세주) 1588-2341</p>	<p>22</p> <p>가족연극 시리즈 1탄! 극단 로. 기. 나래 (소금인형-나를 찾아서)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032-507-5996</p>	<p>23</p> <p>가족연극 시리즈 1탄! 극단 로. 기. 나래 (소금인형-나를 찾아서)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032-507-5996</p> <p>나-신포니에타의 2013 중구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꽃보다 아름다움' '여자' 인천중구문화회관 / 오전 11시 7천원, 학생 5천원 ☎032-760-6403</p>	<p>24</p> <p>가족연극 시리즈 1탄! 극단 로. 기. 나래 (소금인형-나를 찾아서)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032-507-5996</p> <p>나-신포니에타의 2013 중구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꽃보다 아름다움' '여자' 인천중구문화회관 / 오전 11시 7천원, 학생 5천원 ☎032-760-6403</p>	<p>25</p> <p>브런치콘서트 '몬스터 오페라이아기'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1만원 ☎032-500-2000</p>	<p>26</p> <p>2013 합투 박찬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8만9천원 S석 7만7천원 ☎옴므기획 1566-6551</p> <p>연극(미운남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27</p> <p>2013 합투 박찬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8만9천원 S석 7만7천원 ☎옴므기획 1566-6551</p> <p>연극(미운남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 전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세 개의 주발에

문화를 듬뿍 담아 드려요

‘아, 이게!’하는 감탄사가 먼저 튀어나온다. TV에서 여러 번 본 익숙한 그 건물이다. 하지만 ‘대체 무슨 건물이지?’ 독특한 외관과 거대한 크기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트라이볼(Tri-bowl)! 하늘을 향해 펼쳐진 커다란 세 개의 주발 트라이볼에 이제 문화가 가득 담긴다.

글 김윤경 인터넷신문 I-View 편집위원

육중한 조형물 아래 얇게 깔린 물에 비친 그림자와 어우러진 부드러운 곡선의 독특한 외형을 가진 트라이볼은 이미 인천의 명물이다.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가득한 멋스러움에 연인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다. 그동안 일반 기획전시와 대관 등으로만 이용했던 트라이볼이 최근 인천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봄 햇살이 눈부신 날, 송도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일년 내내 즐거운 공연과 전시가 가득한 트라이볼에서 문화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송도, ‘문화감성’ 키운다

송도국제도시는 그동안 기업·학교 유치 등으로 최첨단·바이오·교육 도시의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다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공간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 송도국제도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성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을 계기로 문화 콘텐츠와 인프라를 확충할 기회를 맞았다. 인

천도시공사 등은 가칭 ‘송도 문화벨트’ 사업을 계획하고 트라이볼, 투모로우시티, 컴팩·스마트시티 등 송도국제도시 내 건축물을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트라이볼’이 지난해 11월 22일 재개관하며 변신을 예고했다. 문화사업의 콘텐츠 개발을 위탁받은 인천문화재단은 트라이볼 재개관 기념공연을 파격적으로 준비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6시에 막을 내린 공연에서는 국악, 마임, 라디오 공개방송, 토크쇼, 영화상영이 연이어 이어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매달 흥겨운 ‘문화파티’ 열려

인천문화재단은 올해 트라이볼에서 공연, 전시, 교육 등으로 세분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형극장처럼 탁 트인 트라이볼의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5월과 11월, 12월에는 어린이와 수능을 맞은 학생, 가족 등 시즌별로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테마콘서트가 열리고, 4월부터 10월까지지는 클래식과, 판소리, 마술쇼,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동네콘서트’를 진행한다.

매월 한 차례 인천교통방송과 함께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청춘콘서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번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만드는 오픈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토크콘서트 외 라디오 공개방송을 동시에 즐기는 색다른 재미를 안겨줄 것이다.

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직접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 전시인 ‘미디어+놀이터’, 송도의 주요 거점지역을 선정해 현장에 작품을 설치하고 인근 대학, 학생, 연구소, 작가 등과 함께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인 ‘송도현장 프로젝트’, 시민사진 전시회 ‘트라이포토전’, 미디어 설치작품 위주의 ‘건축무한트라이볼의 비밀’ 등 실험적이고 창작성이 가미된 다채로운 전시회가 이어진다. 이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난타수업과 연극수업으로 이뤄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트라이볼풀’이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공연

- 트라이볼 테마 콘서트 : 5월 5일 / 11월 22일 / 12월 21일~25일
- 트라이볼 동네 콘서트
- 4월 12일(금) '트라이볼로 떠나는 클래식 여행'(가제)
- 6월 15일(토)~6월 16일(일) 창작극
- 7월 13일(토) 야외 버스킹콘서트
- 8월 4일(일) 마술공연
- 10월 13일(일) 동네콘서트
- 인천교통방송과 함께하는 공개방송 '청춘콘서트'
- 3월~12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4시

전시

- 어린이 미디어아트 체험전 <미디어+놀이터> : 4월~6월
- 송도현장프로젝트 <tele_path_y> : 7월~9월
- 사진전 <트라이 포토전> : 10월~11월
- 건축무한트라이볼의 비밀 : 12월~2014년 1월

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트라이볼풀>
- Bowl I 3월 2일~5월 11일 / 매주(토)
- Bowl II 5월 25일~7월 20일 / 매주(토)
- Bowl III 9월 7일~11월 9일 / 매주(토)
- 방학예술캠프 : 여름방학(7~8월 중)

Plus Tip 올 연말까지 트라이볼에서 열리는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트라이볼 홈페이지(www.tribowl.kr)에서 선착순 사전접수를 마치면 누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단, 어린이 미디어아트 체험전을 비롯한 전시 프로그램은 유료다.

유해물질통에서 물 받아먹은 슬픈 이야기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취



1 비상 급수 지원에 나선 미군 차량(1965년) 2 만수동 부락에서 열린 생활개선 현지 발표회(1965년) 3 의복 개선 모델이 된 마을 처녀들(1965년) 4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인선 착공 축하 집회(1971년) 5 경인선 착공 축하공연에 출연한 가수 이미지(1971년)

물지계가 가정의 필수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수도 보급이 완전하지 않은 데다 특하면 단수(斷水)가 돼 주민들은 우물이나 급수차에 의존해 식수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일년 내내 아랫동네의 공동수돗가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했다. 한여름 젊은 아낙이 물지계를 지고 언덕을 오르다 졸도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사진1은 1965년 늦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돗물이 단수되고 우물이 마르자 미군 급수차가 동원된 모습이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초롱'이라고 불린 함석 물통을 급수차 앞에 길게 내놓았다. 언제 다시 급수차가 올지 몰라 온 식구가 다 동원되었다. 혹시 내 앞에서 물이 똑 떨어질까 봐 그들은 조바심으로 물줄기를 바라본다.

그런데 미군 급수차가 전용급수차가 아닌 듯. 그제 마음에 걸린다. 'NO SMOKING WITHIN 50 FEET (50피트 이내 금연)'이라고 적혀있고 'FLAMMABLE'이란 글자가 크게 써있다. 단어의 의미를 미루어 볼 때 원래 '가연성' 혹은 '터지기 쉬운' 물질을 담았던 통으로 추정된다. 급수를 위해 그 속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도 화학물질 혹은 가스를 담았던 유해물질 운반통에서 물을 받아먹었다는 당시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50, 60년대 농촌을 중심으로 '4H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생활 향상과 기술 개량을 도모하려는 농촌 운동의 일환으로 부락 입구 마다 초록색 네잎 클로버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사진2는 1965년 봄, 만수동 부락에서 개최된 생활개선 현지발표회의 모습이다. 동네 마당에 만수국민학교에서 빌려 온 천막을 치고 커다란 명석을 깔았다.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들이 따로 앉아 운

갑로 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모두 고무신을 벗어놓고 좁은 명석에 다닥다닥 앉았고 몇몇 아낙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의식주 등 생활개선에 대한 다양한 사례발표가 있었는지 벽에 붙은 순서지 위에 글자가 빼곡하다. 이날의 연사들은 옆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3은 그날 생활개선 의복의 샘플 모습이다. 물론 모델은 부락에서 뽑은 처녀들이다. 한 사람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같은 무늬의 머리핀을 꽂았다. 다른 처녀는 몸빼 스타일의 간소복을 입었다.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꽃잎은 빨갱게 멍이 들었소' (동백아가씨).

우리는 그녀를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엘레지(Elegy)는 슬픔을 노래한 악곡, 즉 비가(悲歌)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최고 가수 이미자는 애수 어린 목소리로 산업화시대 시름과 눈물을 삼키며 멍이 들었던 여인들의 마음을 달래 주었다. 당시에는 라디오를

틀었다하면 '섬마을 선생님', '여자의 일생', '기러기 아빠', '님이라 부르리까' 등 그녀의 노래만 나왔다.

사진4, 5는 1971년 4월 7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인전철 착공 축하공연의 모습이다. 말로만 듣던 이미자가 인천에 오자 그야말로 구름관중이 몰려들었다. 그날 그녀는 인천시민들에게 무슨 노래를 들려줬을까. 경인전철은 이날 착공해 74년 8월 15일에 개통했다.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올해로 꼭 600년이 된다. 빛바랜 과거 사진을 통해 인천의 현재를 가능해보며 미래를 그려 본다. 이 지면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른바 인천의 '산업화' 시절 사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그 속에 맘 울리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코 울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수상자, 인천 강단에 서다

빅뱅이론의 권위자이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무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물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3일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대강당에서 '21세기의 주역, 인천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조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인천국제교류센터의 글로벌 시민강좌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초청 강연회는 신청접수 이틀 만에 처음 계획했던 좌석 600석의 2배가 넘는 1천200여 명이 접수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과학에 관심을 두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기술과학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인천 청소년들에게 제안했다. 이어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지식의 유효 수명이 7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으로 줄었다"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다양한 분야에 관해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무트 교수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와 관련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인은 앞으로도 양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스무트 교수는 은하와 별의 기원 등 우주 연구에 관한 공헌으로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문의 : 인천국제교류센터 ☎451-1735

인천중기청, 전자파 설비 무료 개방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전자파 설비를 무료로 개방한다.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전자파 시험과 국내·외 인증 시험시 자체 보유가 어려운 전자파 관련 시험설비 및 장비를 무료로 쓰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비용을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중기청은 10m와 3m 전자파 시험장, 전자파 장애 수신기 등의 시험장비(54대) 등 100억원대의 전자파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문의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450-1164

카카오톡 채널 운영

우리시가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인천시민들과 대화의 문을 여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한다.

시는 '인천톡톡' '미추홀톡톡'의 친구계정명으로 카카오톡에 등록해 인천 출신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소식, 연예프로그램 촬영, 맛있는 음식점 안내 등 인천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재미있는 애깃거리를 매일 나눌 예정이다.

카카오톡 채널운영은 미추홀콜센터를 이용한 15만명의 시민들 가운데 친구등록에 동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미추홀콜센터 상담사 6명이 매일 인천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32



송도글로벌캠퍼스 내년 3개 대학 개교 전망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3개 외국대학 분교가 추가로 개교, 총 4개 대학이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봄 학기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벨기에 겐트대의 분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조지메이슨대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분교 설립 승인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분교 실사가 예정돼 있다. 교과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3월 경영·경제·국제학 학부 과정을 개교하고 760명의 학생을 유치할 예정이다.

겐트대는 지난달 15일 교과부에 분교 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바이오·식품·환경공학의 3개 학부 프로그램 개교를 목표로 하며 예상 학생 규모는 900명이다.

내년 가을 학기에 분교가 문을 열 예정인 미국 유타대는 올 상반기 중 교과부에 분교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분교 이사회에서 분교 설립안이 통과됐다.

한편 송도 캠퍼스에 가장 먼저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는 지난해 3월 석·박사 과정을 개교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학부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34

전국체전, '녹색체전'으로 치른다

올해 우리시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녹색·친환경'을 모토로 치러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11일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대회 준비 과정과 대회 기간 녹색운동인 '5R(Reduce, Reuse, Recycle, Renewable energy, Revitalisation)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절약(Reduce) 운동은 대구시에서 치러진 제93회 대회의 86.4% 수준에서 운영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또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열린 성화대를 재사용(Reuse)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훈련시설과 경기용 기구 1만4천812점을 미리 사용해 재활용(Recycle)한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운동을 실천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경기장 28개를 개·보수, 대회 이후 인근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재생(Revitalisation)도 5R 운동에 포함됐다.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전역과 인근 도시 일부에서 열린다.

문의 : 시 전국체전운영과 ☎458-7322



산림조합, 남동구에 '나무시장' 개설

인천산림조합이 관내 남동구 수산동에 '나무시장'을 개설해 조합원이 생산한 양질의 나무를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한다.

일반 시중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품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임업기술지원원이 배치돼 나무의 선택과 심는 방법 등의 기술지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나무시장 운영은 오는 5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다. 판매수종 및 가격은 유실수 목목(매실나무 외 30여 종)이 1천500원~6천원, 산림용 목목(소나무 외 20여 종) 1천500원~1만원, 조경수 목목(벚나무 외 50여 종) 2천500원~3만원, 화관목류(장미 외 30여 종) 1천500원~5천원이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440-3683



영종입주자지원센터 부동산 등기업무 처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하늘도시 내 1만405가구의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단지 내에 설치된 통합입주자지원센터에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교부 및 검인업무를 처리한다.

지난해 경제청 영종관리과에서 처리한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업무가 총 4천624건으로, 1일 평균 20건이 처리된 점에 미뤄볼 때 통합입주자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1일 평균 30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처리 시간은 직인관리 등의 사유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714

차량번호 지정요일제, 선택요일제로 변경

우리시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끝번호 지정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요일제'로 전환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량에 대해 월~금요일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자동차 등록원부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요일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작성 제출 후 요일제 스티커(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승용차에 부착하면 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과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할인의 추가혜택을 받는다.

한편 시는 승용차 선택요일제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출입통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3863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 활성화 기대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송영길 시장은 올해초 '원도심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투자유치 10대 전략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연계 원도심 투자유치 ▲대기업유치 기반구축 ▲루원·도화·배후지 전략지역 투자유치 ▲원도심 내 일자리창출기업 유치 ▲기업 이전방지 총력 ▲산업단지 내 기업확장 지원 ▲회귀기업 전략적 유치 ▲한상기업연계 외자유치 ▲국책사업연계 앵커시설 유치 ▲전략적 투자홍보 및 유치조직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원도심 투자유치조직을 기획외자·기업유치·투자홍보 등으로 개편하는 한편 시민, 공무원, 기업, 유관기관을 총망라해 투자 전략정보 수집·소개와 국내·외 공동 마케팅 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경제인 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 유관기관 합동 맞춤형 유치 활동도 펼친다. 교육, 금융·비즈니스, 의료, 쇼핑시설 등 앵커시설 유치에도 힘을 쏟아 원도심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우리시는 지난해 31억8천200만달러(신고액 기준 3조4천억원)를 유치했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인천 전입기업 60% 가량이 기업성고가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력수급, 미래발전가능성, 맞벌이, 자녀교육, 의료, 문화 등에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 시 투자유치담당관실 ☎440-3303



송도에 산악자전거 코스 생긴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그린 에너지 도심형 MTB(산악자전거) 코스'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생활체육시설(레저스포츠시설) 지원 공모에 응모, 1·2차 심사에서 MTB 지원사업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송도지구의 주요 간선도로에 조성된 연장 96km의 자전거 코스와 연계, 송도1교와 송도2교 사이인 북측 수로변에 레저·스포츠 시설을 꾸미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3억5천만원)과 시비 등 7억500만원을 투입, 내달부터 시설설계에 들어가 오는 10월 완공할 방침이다. MTB 코스는 서울 난지자전거공원 코스의 2배인 길이 1km(너비 6m)로 조성하며 쉼터, 자전거보관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824

1회 추경예산 원도심 활성화 집중

우리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천400억원 규모를 편성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시는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금의 일부인 1천35억원과 보육업무 등에 쓰일 국고지원금(208억원)과 추가교부사업비(82억원)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1천400억원을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산하 7개 구로부터 제출받은 원도심 사업 예정지역 14곳의 필요예산을 800여 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들 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등은 '원도심 추진단 회의'를 통해 판단할 계획이다.

오는 6월과 10월 인천에서 열릴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외 전국체육대회 환경경비 등의 필요경비도 지출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경비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 예산담당관실 440-2244

'연인(延仁) 프로젝트' 본격 추진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의 대학생들과 인천 시내 초·중·고교생을 멘토-멘티로 묶는 '연인(延仁)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우리는 지난달 25일 관내 만수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연세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와 연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각급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연인 프로젝트 출범식 및 결연식'을 개최했다.

연인 프로젝트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의 우수한 재능과 역량을 가진 대학생들이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지도, 외국어교실, 예체능활동 등을 지원하는 교육 협력 사업이다.

송영길 시장은 "2013학년도 신입생 4천명을 대상으로 레지던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연세대가 첫 번째 사업인 '연인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지역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시 교육기획관실 ☎440-2172

인천여성가족재단 출범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지난달 6일 출범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역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 온 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여성가족센터와 여성사회교육을 담당해 온 인천여성문화회관을 통합해 설립됐다.

재단은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의 사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교육, 여성평생교육, 교류협력사업, 여성전문수영장운영, 인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운영,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영길 시장 등 주요 인사들과 여성계 대표와 전문가, 일반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인천여성 핵심기관의 출범을 축하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693



청라 신세계 쇼핑몰 하반기 착공

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올 하반기 착공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신세계와 외국투자기업이 합작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 2016년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신세계가 3.3㎡당 200만원 선에서 부지 가격 협상을 마쳤고 부지 매입비 1천억원 가운데 35%인 350억원을 지난해 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은 청라국제도시 2블록 서구 경서동 일대 16만5천㎡ 부지에 쇼핑과 문화, 레저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천500억원이다.

경제청은 복합쇼핑몰이 4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내고 연간 1천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모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23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 개원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가 지난달 25일 부평구 구산동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공업계 고교생과 산업체 근로자 등을 국제적 수준의 기능과 기술로 숙련시키고 기능올림픽 대표선수 훈련 등 고숙련 기능인을 육성한다. 옛 노동연수원 부지 1만6천451㎡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 센터는 용접 등 25개 직종 전수를 위한 숙련기술 전수시설과 창업보육실(4개실)을 갖춘 숙련기술인 지원시설, 업무·지원시설로 구성됐다. 기숙사(96실)와 기능올림픽 역사관, 명예의 전당 등의 시설도 갖췄다.

문의 : 시 일자리창출과 ☎440-4242



헌 주소 줄게, '새 주소' 다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이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 201종과 시, 군구, 공사·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의 396개 전산시스템을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했다.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접하는 도로명주소는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소로 인식돼 공공기관에 비해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10개 군구와 함께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로 정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업무용으로 운행 중인 대형관용버스 외관에도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을 부착했다. 익숙해지면 불편하지 않다. 우리집 주소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용이나 검색요령 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알 수 있다.

문의 : 시 토지정보과 ☎440-4593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선 주민간담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계양구청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이한구 위원장, 홍성욱, 구재용, 김병철, 이용범 의원 5명의 위원과 인천시·구 관계자, 계양구·서구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구성된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 이유와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설명하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등 불편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아라뱃길 주변 대단지 꽃단지 조성, 도로 파손 복구, 교통안전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생활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애로사항이 조속한 시일내 해결되길 희망하며 향후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연평초중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청원 채택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연평초·중·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의 건을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연평도 주민이 방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충분한 면적의 대피시설 설치와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기존 운동장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이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사업 추진 시 학교 관계자뿐 아니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사 기간 중 학습권, 급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세계적인 수준의 대피소를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2013 인천실내·무도대회 준비상황 점검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인천에서 개최할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지난달 14일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방문했다. 방문현장에서 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 홍보관을 둘러보고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회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인천시, 각 군·구, 조직위 상호간 역할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대회명칭부터 낯설 뿐만 아니라 생소한 종목들로 펼쳐지는 대회인 만큼 대회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원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격려

인천광역시의회는 도시철도2호선 203공구(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구간) 및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1공구(가정오거리구간) 공사장을 찾아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지난달 5일(화)에는 이성만(의장), 구재용(운영위원장), 이용범(기획행정위원장), 박승희(문화복지위원장), 차준택(기획행정), 김병철(건교), 전원기(건교) 의원 등으로 현장방문단을 구성하여 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건설현장인 서구 당하동 현장과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제1공구 건설현장인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수고하는 관계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서구 가정오거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1공구 현장에서는 한창 진행 중인 지하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고속도로직선화 사업에 대한 공정을 보고 받고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효행장학금 전달식에 참석

이강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한국효행수상자효도회 인천시지회가 2월 21일 개최한 효행심이 투철하고 성적이 우수한 인천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효행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효행장학금 대상자는 6명으로 각 50만원씩 총 300만원이다.



한국효행수상자효도회 인천시지회(회장 신한옥)는 그동안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회비 등으로 4천 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혜택을 받은 학생은 68명에 이른다.

이강호 의원은(남동구 구월 2·3동, 간석 1·2·4동) 장학금 전달한 후 학생들을 격려하며 "장학금을 수상한 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발전 자문위원 위촉식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8일(금)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정발전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교육, 경제, 문화, 학계, 법률 등 15개 분야의 전문가 25명이 의정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성 및 민간단체 등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위촉됐다.

앞으로 의정발전 자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각 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 정책자료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의정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만 의장은 의정발전 자문위원의 활발한 자문 활동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하면서 자문위원의 진취적 자문활동을 당부했다.



2013 상반기 의원 연찬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관내 인천교직원수련원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13상반기 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는 2013년도 인천시의회의 정책개발, 연구 및 워크숍의 활성화를 통한 의원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내용으로는 'GCF의 성공적인 출범·운영을 위한 도전 과제' 및 '공직선거법 관련 강의 및 질의응답' 등의 강의로 진행되어 GCF 이해를 통한 인천시의 역할 모색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논의 등이 있었다.

또한, 의원 및 5급 이상 공무원들의 화합 및 단합을 위한 백운산 산행 및 지역문화 탐방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로 의정발전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정상화 추진 촉구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정상화 추진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계양구출신 홍성욱, 이도형, 이한구, 김영태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경인교대 인천캠퍼스가 종전(1학년부 4학년까지 수업)과 같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당국의 발전전략을 즉시 수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인교대 인천캠퍼스가 종전대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본 촉구 건의안은 지난달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이승철을 당초 경인교육대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통령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각 정당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고, 지난달 22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경인교대에 직접 전달했다.

Info+box

울목도서관 문화예술 행사

울목도서관에서 여는 4월의 문화예술 행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당산을 기다린다.

4월 도서관주간 행사

제목 : 당신의 힐링 멘토! 울목도서관

기간 : 2일(화)~26일(금)

주요내용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및 정원
[원화전시] 필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	2일(화)~26일(금)	별관 어린이실 2층	누구나
[이벤트] 도서관 생각 스피치! 울목도서관은 ○○대!	2일(화)~26일(금)	본관 및 별관	누구나
[작가와 만남] 박재철 작가와 자연 속에서의 만남	13일(토) 오후 2시	별관 어린이실 2층	초등학교 1~5학년
[체험행사] 독서퍼즐 만들기	14일(일) 오후 2시	별관 어린이실 2층	어린이 20명
[어린이 인형극] "책크와 콩나무"	20일(토) 오후 2시	본관 소극장	누구나 70명
[체험행사] 양말들판 (양말에서 새싹이 돋는 신기한 자연놀이)	21일(일) 오후 2시	별관 뒤 정원	어린이 20명

접수기간 : 3월 26일(화)~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별관 어린이실)

참가비 : 무료

문의 : 770-3808, 3811

인문학 강좌

제목 : 2013년 도시인문학 강좌

[근대도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묻다]

일시 : 13일(토) 오전 9시(강의)

27일(토) 오전 10시(답사)

내용 : 인천의 도시공동체 시민운동의 진행과 방향(4월 13일)

배다리, '퇴락한 골목길'에서 '도시재생운동'의 발산지로(4월 27일)

강연자 : 민운기(스페이스비)

참가비 : 무료

문의 : 770-3804

전시

제목 : 허영만의 식객 : 맛있는 봄

기간 : 4월 2일(화)~5월 31일(금)

장소 : 인천광역시 울목도서관 본관 1층 일반자료실

내용 : 허영만 식객의 카툰 컷, 팔도 현장 맛집 사진 및

정보 전시와 봄철 요리조리방법 소개

관람료 : 무료

문의 : 770-3807

청소년 대상 토요일 운영 프로그램

제목 : 울목도서관 '우리들의 영화, 소설을 삼키다'

[2013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기간 : 6일(토)~28일(일)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내용 : 연출, 촬영, 콘티 및 제작 등

일정	주제	상세내용	비고
6일(토) 오전 11시	연출 촬영	영화감독의 역할 및 촬영 감독의 역할 등 배우 연기지도, 카메라 작동법 강의	고등학교 1~2학년/ 1.4. 방문 및 1.5. 전화 접수 1.6. (30명 내외)
13일(토) 오전 11시	콘티	콘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콘티를 구성하는 요소 및 작성 방법 교육	
20일(토) 오전 11시	제작	시나리오와 콘티,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팀별로 직접 영화촬영	
27일(토) 오전 11시	제작		
28일(일) 오전 11시	제작		

강연자 : 김관철(영화감독)

참가비 : 무료

문의 : 770-3804

미추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미추홀도서관이 마련한 4월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문의
유경애 작가전 『수채화』	4월 17일(수) ~5월 5일(일)	전체	440-6643
중이인형극 『이야기 하루』	20일(토) 14:00	-	440-6662~4
이야기꾼의 책공연 『제랄다와 거인』	27일(토) 14:00	-	440-6662~4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문의
e-book 및 오디오 북 서비스	24시간	미추홀도서관홈페이지(온라인서비스)전자도서관 e-book/오디오북 스마트폰(어플/앱 다운로드)	440-6654~5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4세~초등 5학년	440-6647~8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미추홀도서관 회원(타관 회원-등록 후 이용가능)	440-6634~5

Info+box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인천시립박물관은 박물관 상설음악 공연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을 열고 있다. 이 공연은 가족단위 관람객을 비롯해 연인, 친구들끼리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일시 :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4~5시

장소 : 박물관 1층 석남홀

예약 : 공연이 있는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 440-6750

'문학과 사진' 작가 공모

사진공간 배다리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문학과 사진'이란 제목으로 문학(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을 사진으로 표현하거나 기타 두 영역을 접목 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진가를 공모한다.

신청자격 및 수상대상자 : 제한없음

지원대상사업 및 공모부문

공모분야 : 사진

주제 : 문학을 소재로 한 사진

지원규모 및 시상내역

선정 1명 : 전시지원(전시공간, 포스터, 홍보)

전시일 : 6월 14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것)

분량 : 사진 10장 이상의 포트폴리오

신청접수, 마감 : 4월 15일

문의 : 070-4142-0897, 010-5400-0897

인천둘레길 2013 정기걷기 프로그램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시민걷기 행사를 벌인다. 새봄을 만끽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대상 :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일정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9시(주1회 정기)

문의 : 433-2122

날짜	코스	출발지	도착지
4월 27일	인천둘레길 2코스	연무정	나비공원
5월 25일	인천둘레길 3코스	세일고주차장	세일고 주차장
6월 22일	인천둘레길 4코스	세일고주차장	신명요양원
7월 27일	인천둘레길 5코스	신명요양원	인천대공원

2013 최신 자격증과정 열어

인천사이버교육센터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시험 등 2013년 최신 자격증과정을 모두 무료제공로 운영하고 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인터넷 주소 : www.cyber.incheon.kr

한글인터넷 주소 :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한국 또는

인천사이버교육센터·한국

학습기간·수강신청 : 연중 학습·제한 없음

교육비 : 무료

교육과정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자격증(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소양. 취미(건강, 생활법률, 금융지식, 생활한문 등)

문의 : 440-7674~5



청소년,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인천YWCA는 청소년,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즌

대상 : 중학교 1학년 대상

내용 : 청소년들이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학급 친구들과 간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

모집 : 3월 5일부터

분야 : 친환경EM전문가, 네일아트 자격증반, 검정고시대비반, 운전면허취득(온라인교육), 호텔 룸메이드, 협동 벽화 그리기, 요리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강료 : 전액 무료

문의 : 424-0524

Info+box

글로벌서비스센터 제2기 한국어 교실 운영

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서비스센터는 제2기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어 배우기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운영시기 : 22일~7월 25일(14주간)
 운영내용 : 초급 I 월·수 16:00~17:30
 초급 II 월·수 17:40~19:10
 중급 화·목 17:00~18:30

장소 : 글로벌서비스센터(미추홀타워 1층)
 교육대상 : 외국인 대상 과정보 10명 내외
 수강료 : 무료
 신청기간 : 4월 1일~19일
 신청방법 : 이메일 global@korea.kr
 문의 : 453-7663

해병대 장교 모집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에 입대할 장교를 모집한다. 귀신잡는 해병의 용기와 지혜, 담력을 배워 나라의 기둥, 대한민국의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할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바란다.

지원자격
 사관후보생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군 장학생 : 국내 4년제 대학 1,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의 대한민국 남자

복무기간
 사관후보생 : 3년
 군 장학생 1학년 : 3년+장학금 수혜기간(4년)
 군 장학생 2학년 : 3년+장학금 수혜기간(3년)

모집전형
 지원서 접수 : 4월 29(월)~5월 26(일)
 1차전형(필기고사) : 6월 8일(토)
 1차 합격자 발표 : 6월 26일(수)
 2차 전형(면접/체력검정/신체검사) : 7월 1일(월)~12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22일(목)
 문의 : 031) 8012-3101, 33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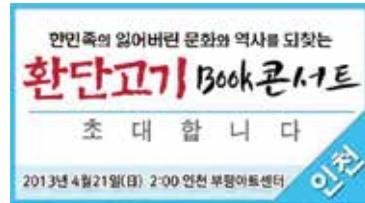
교통사고 상담실 무료 운영합니다

인천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용방법
 수시상담 :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한 상담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우편번호: 407-051)
 방문상담 : 전화예약 접수 후 방문상담
홈페이지 : www.int.or.kr
 문의 : 554-8011~2, 팩스 554-8034

인천 환단고기 북 콘서트

대한역사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환단고기 역주본 발간을 기념하고 한민족 역사문화의 회복을 위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연다.

일시 : 4월 21일, 14시
 장소 : 인천부평아트센터



'환단고기'는 안함로의 '삼성기'(삼성기 상), 원동종의 '삼성기'(삼성기 하),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일십당 이맥의 '태백일사'를 모아 한 권으로 묶은 사서로 신라의 고승 안함로에서 조선조 이맥에 이르기까지, 천 년이라는 기간을 걸쳐 다섯 사람이 저술한 사서가 하나의 책으로 집대성했다.
 다채로운 공연과 안경전 역주자의 열정적인 강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인천 북콘서트는 지난해 서울·부산·대전·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어 1만명 이상이 동참했고, 이번 인천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열게 됐다.
 문의 : 070-8176-7238

기업부서 인천청년인턴십 운영

인천광역시 '2013 인천광역시 청년인턴십 '기업부서' 프로그램'을 연다. 청년 구직자 및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인턴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인턴대상 : 관내 거주 만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
 인턴기업 : 인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경영이 건실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무형태 : 주 40시간 6개월간 인턴근무
 지원내용

중소 제조업체	그 외 기업
- 인턴급여 6개월간 월 1,100,000원 * 인턴사원에게 월 1,400,000원 (통상임금) 이상 급여 지급시 - 정규직전환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1,500,000원 지급	- 인턴급여 6개월간 월 800,000원 * 인턴사원에게 월 1,400,000원 (통상임금) 이상 급여 지급시
*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인 미만 신재보험 업종 1차 분류 C.제조업 해당기업	

문의 : 428-8046

Info+box

인천시 블로그기자단에 참여하세요

인천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인천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인천시의 아름다움과 생생한 시정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모집대상 : 인천지역 취재가 가능한 분으로서 평소 인천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각 분야별 전문가
 • 일반기자단(뉴스, 문화·예술, 관광·스포츠) 7~10명
 • 파워블로거 또는 전문기자가 3~5명

모집인원 : 10~15명
 지원자격
 • 인천지역 현장 취재활동이 가능한 사람(기사작성-월 최대 2건)
 • 인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블로그기자단 활동 경력이 있는 분
 •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능하고 블로그 및 SNS 운영이 활발한 분

모집기간 : 4월 5일까지 24:00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
 활동기간 : 4월~12월(9개월)
 활용내용 : 현장(행사)취재 및 인천시와 관련된 콘텐츠 발굴 등
 문의 : 440-3042

'인천定名 600년! 내고장 인천' 2013 생생시정 바로알기 참가자 모집

인천광역시 최첨단 국제도시 건설현장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환경시설, 문화관련 기반시설 등을 돌아보는 시정 현장견학을 실시하리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견학시기 : 2013년 3월~12월
 대상 : 일반시민, 학교, 단체, 타시도 주민 등
 신청접수
 접수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신청
 접수처 : 인천시청 자치행정과, 군·구 총무과(자치행정, 행정자치),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 440-2427, 2449 팩스 440-8645

구분	코스	견학대상지
학생	1코스	물홍보관,가소과학관,송도자연환경센터,송암미술관,시립박물관,소래역사관
	2코스	동이네다랑새,달동네박물관,월미공원,한국이민사박물관,한중문화관
	3코스	국립생물자원관,수도권쓰레기매립지,선사박물관,나비공원,부평역사박물관
	4코스	컴팩스마트시티,송도컨벤시아,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국립인천대학교,인천대교홍보관
	5코스	물홍보관,송도자원환경센터,남항사업소,컴팩스마트시티,인천대교홍보관
	6코스	청라홍보관,정서진,수도권쓰레기매립지,국립생물자원관,나비공원
일반	7코스	한중문화관,달동네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인천항,근대건축전시관
	8코스	송도컨벤시아,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송암미술관,소래역사관,시립박물관

설계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천시는 인천지역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활성화하고, 부족한 설계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문 직업교육과정을 열고 있다. 관심 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바란다.

교육대상 : 만 35세 미만의 미취업 구직자(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우선선발기준 : ①인천시민 ②군필자)
 교육비 : 전액무료, 중식비 지급, 매월 교통비 5만원 지급 (80% 이상 교육 이수자)
 교육인원 : 각 과정 25명
 교육기관 :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접수방법 : 2sandan.kopo.ac.kr 팝업창에서 인터넷접수
 문의 : 510-2124, 2151

과정	접수기간	교육기간	교육내용
UG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설계 전문가 과정	4월 8일~23일	5월 1일~8월 30일 (4개월, 09:00~16:00)	Solid modeling Assembly Drafting Surface modeling Motion & simulation 등
CATIA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설계 전문가 과정	5월 10일~27일	6월 3~10월 7일 (4개월, 09:00~16:00)	CATIA Basic CATIA 고급 곡면 향상 Solid 모델링 도면작성 Surface Advance 등

인천시민합창단 합창단원 모집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빛낼 인천시민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열정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인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
 인천시 해당 관내에서 주1회 연습 및 수시공연 참여 가능한 자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원서 접수 : 연중 *평일 :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 및 접수장소 : 해당동 주민센터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구두접수 불가)

전형방법
 합창단원
 - 1차 심사 : 서류전형(이력사항)
 - 2차 심사 : 실기전형(간단한 곡 위주의 오디션)

문의 : 420-2784

Book

이달의 서평



인생의 여백을 사랑하라

김희정 | 북오션 | 2012

세네카, 몽테뉴, 베이컨, 소로, 쇼펜하우어 등 모두 5명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서양의 대표 철학가가 들려주는 느낌과 비유, 여백과 일상의 기적, 행복에 이르는 길까지 인류사를 관통하여 널리 읽히며 전수된 불멸의 고전들 속 잠언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걸음 물러났다 다시 시작하는 지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며 인생의 여백을 즐기는 미학,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일상의 기적을 발견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을 전한다.



시로 읽는 니체

오철수 | 갈무리 | 2012 - 향토작가 시에세이

1990년 제3회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한, 삶의 구체성과 진지함을 시로 표현하는 데 애정을 쏟아온 저자의 시 에세이다. 이시영, 기형도, 강수니, 조문경, 최영미, 그리고 윌트 휘트먼 등 현대 시인의 시 83편을 니체의 사상과 접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삶에 대한 사랑을 힘있게 설파한다. 녹록치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 허무를 넘어 자기긍정의 예술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2030 에너지전쟁

대니얼 예긴 | 올 | 2013

기후와 탄소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에너지가 장차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알려준다. 또한 핵, 석탄, 전기, 그리고 천연가스의 '세일 돌풍'에 관한 굴곡진 역사를 밝히고 새로운 역사를 들춰내어 기후변화에 관한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결국 재생가능 에너지의 부활이다. 그는 풍력, 태양열, 바이오 연료에 담긴 사연을 풀어놓고 이런 양상이 전기차 귀환의 원동력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모탈리티

캐서린 메이어 | 퍼플카우 | 2013

「어모탈리티」는 건강, 자녀, 노후 등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꽃중년들의 모습을 '어모탈리티'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본다. 멋지게 늙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추천도서 목록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순번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	어느 독서광의 유쾌한 책 읽기	김의기	다른세상	책을 애인으로 둔, 못말리는 독서광의 '세상으로 통하는 책읽기!'
2	인생의 여백을 사랑하라	김희정	북오션	세기의 철학자들에게 구하는 느낌과 비유의 지혜
3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변한다	알루보룰레 스마나사라	경성라인	화내지 않는 일에 성공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4	2030 에너지전쟁	대니얼 예긴	올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5	어모탈리티	캐서린 메이어	퍼플카우	새로운 소비층 꽃중년, 그들이 움직이는 경제와 문화
6	오늘의 자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추령	양철북	과학으로 읽는 지구 설명서
7	뇌의 미래	미겔 니코렐리스	김영사	인류의 미래를 뒤바꿀 뇌과학 혁명
8	마침내 미술관	안병광	북스코프	그림을 한 점 한 점 사 모으기 시작한 영업사원이 30년 만에 마침내 미술관을 열기까지의 과정
9	'typEmotion' 문자학의 정립을 위하여	정항균	문학동네	매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자의 새로운 운명!
10	인생은 한숨	마르잔 사트라피	휴머니스트	위기의 순간마다 한숨을 통해 모험의 관문들을 통과하는 로즈의 이야기
11	시로 읽는 니체	오철수	갈무리	현대 시인의 시 83편을 니체의 사상과 접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삶에 대한 사랑을 설파
12	책의 이면	설흔	역사의아침	스물네 권의 책과 스물세 명의 조선시대 인물이 서로를 읽어 낸 상념의 흔적과 기록들 스물네 편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오철수 (본명 오환석)



1958년 인천 출생
1986년 시 '민'을 통해 데뷔

수상

1990 제3회 전태일 문학상

주요저서

시집 「아버지의 손」(1990), 「아주 오래된 사랑」(1993), 「아름다운 변명」(1998), 「조직원역」(2001), 「독수리처럼」(2008), 「사랑은 메아리 같아서」(2009) 시 에세이 「시가 사는 마을」(1993), 「내 마음이 다 화사해지는 시 읽기」(1995), 「나무로부터 배우는 사랑」(2000), 「시 쓰는 엄마」(1994), 「시 쓰기 길라잡이 1~8」(2009) 등

Incheon Life Story

인천 사는 이야기



1978년 어느 봄날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충청도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후 첫 번째 가족사진이,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추억을 남겼습니다. 빨간 바지를 입은 막내인 저는 어느덧 41살이 되었네요. 박상진 부평구 갈월동로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갈매기

월미도에서 인천 앞바다의 노을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렌즈 앞에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착륙하는 비행기와 집으로 돌아가는 갈매기의 모습입니다. 한지는 연수구 한진로



따스한 정이 가득

봄의 길목, 사랑 가득 실은 트럭이 여전한 모습으로 노인회관 앞에 정차해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그들에게서 따스한 봄을 만납니다. 최현미 남동구 용천로



달마시안 대문

학익동 어느 골목에 있는 대문입니다. 특이하게 대문을 점박이로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면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들이 뛰어나오는 상상을 해봅니다. 박정현 연수구 벚꽃로

필드 누빌, 미래의 꿈나무

가족과 중구국민체육센터에 갔다가 인천국제축구단의 축구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당장 필드 위로 달려가 함께 뛰고 싶었습니다. 김영균 남동구 만수로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재래시장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 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홈페이지 (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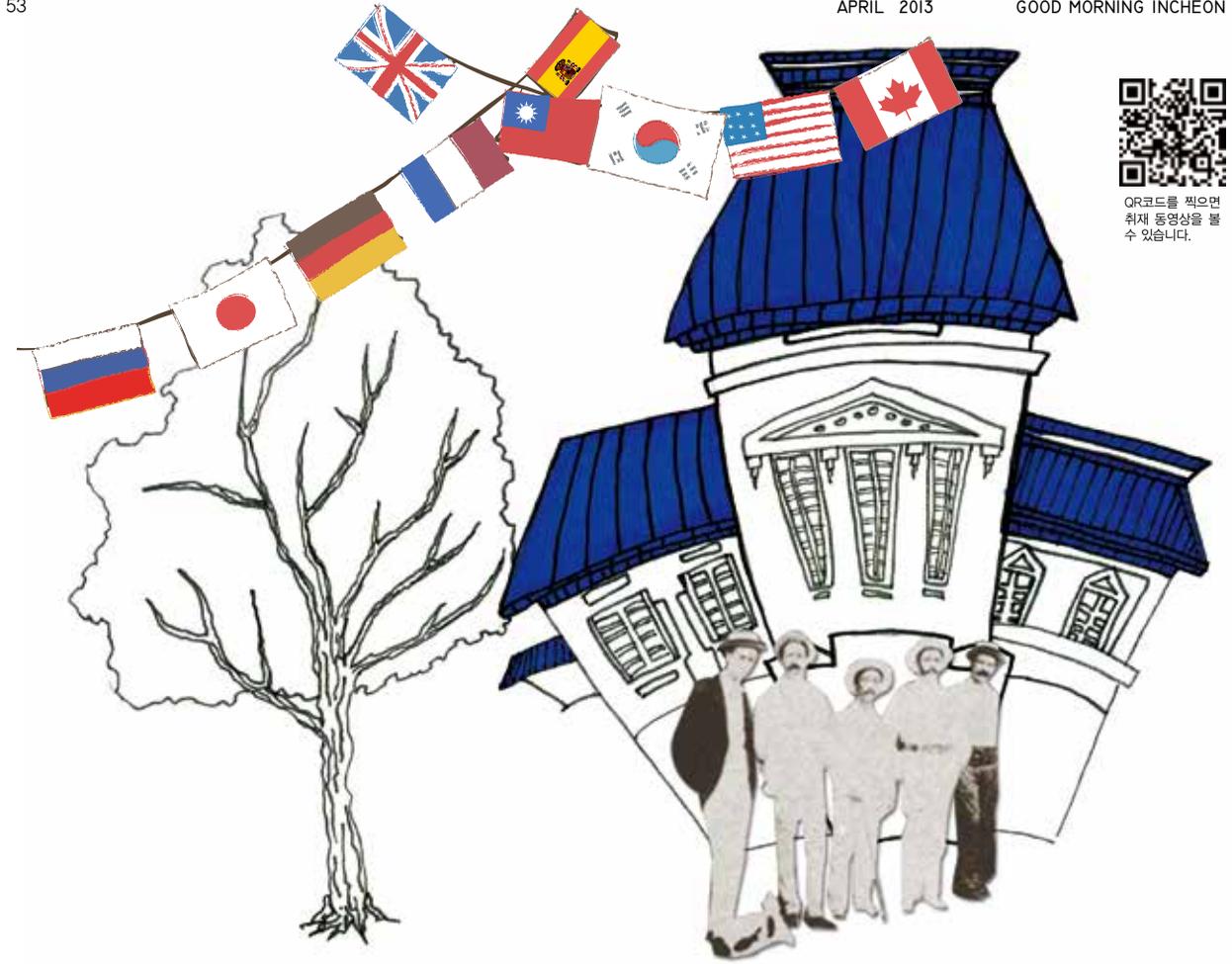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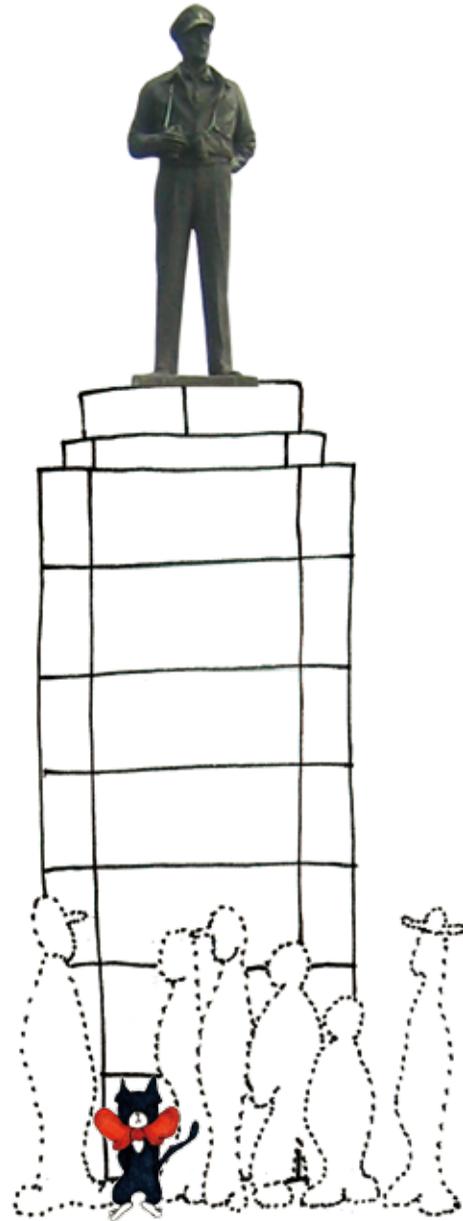
그 타임캡슐엔

벗꽃 잎도 들어 있으리

자유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다. 70년대 말까지 만해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인천에 놀러 왔다는 '인증샷'의 단골장소였다. 그 당시 시내에서 결혼식을 막 끝낸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자유공원에 올라와 포즈를 취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촌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통과례였다. 고향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모인 초등학교 동창들은 식사 후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즐거운 귀환 신고식 같은 것이었다. 서울사람에게 남산이 있었다면 우리 인천사람에게는 자유공원이 있었다.

그림·글·사진 차지원 일러스트레이터

인천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웬만한 가정의 앨범에는 빛바랜 자유공원 사진 한두 장씩은 꼭 있다. 그만큼 인천인들은 자유공원을 좋아했다. 지금은 서울사람 중에 63빌딩에 올라가보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이 듯 이제는 인천사람들도 자유공원에 거의 가지 않는다. 기억 저편으로 멀어지고 있다. 이제는 점차 '기억'을 지나 '역사'로 가고 있는 그곳에서 오랜만에 인천고양이 도도(都島)가 마음껏 '자유'를 만끽했다. 하얀 꽃비 내리는 행복한 사월에.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공원은 1888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서울 파고다공원보다 8년이나 앞섰다. 와우, 놀랍다. 이 공원의 나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원래 이름은 각국(各國) 공원으로 구한말 현재의 공원 부근에 살던 외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림이 그려진다. 머리색이 노란 외국인들이 바다를 보며 양산을 받혀두고 산책하거나 양지 바른 풀 위에 자리를 깔고 둘러 앉아 도시락을 먹는다. 혹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마치 외국의 어느 공원의 모습이다. 이후 일본사람들의 의해 서(西)공원으로 불리다가 광복 이후 이 공원의 이름은 만국(萬國) 공원으로 고쳐 불렸다. 1957년 맥아더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뀐 만큼 여기저기에 다양한 근대문화의 잔상들이 스며있다. 당시를 경험치 못했던 우리에게 그 역사적 흔적을 찾아 서성이게 하는 타임캡슐이 묻혀 있는 곳이다. 자, 그럼 그 타임캡슐을 잠시 열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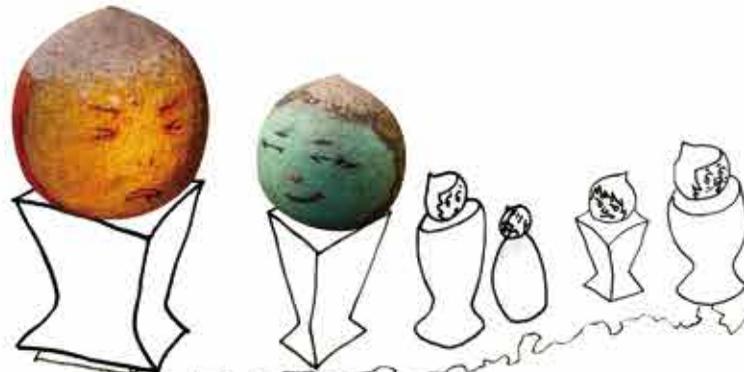
공원광장에서 남쪽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중간에 파란색 양철지붕을 얹은 서양식 건물이 있다. 러시아인 건축가 사바진의 설계로 1901년 세워진 제물포구락부이다. '구락부'라는 말은 영어 '클럽'(Club)의 일본식 발음이다. 일본사람들 참 영어 발음이 희한하다. 이곳은 1913년까지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서양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되었다. 내부에는 사교실, 도서실, 당구대 등이 있고, 밖에는 테니스장이 있었다고 한다. 보름마다 파티를 열면서 식사도 하고 춤도 추었다고 한다. 100년 전의 'Saturday Night Fever'? 이 대목에서 왓지 심사가 뒤틀린다. 이제 이곳은 천장에 샹들리에를 달고 한쪽에는 당시 분위기대로 외국인들이 차와 술을 마시던 바를 되살려 스토리텔링 박물관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이 건물이 유명세를 탄 것은 김하늘과 고수가 출연한 2001년 드라마 <피아노>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석정루(石汀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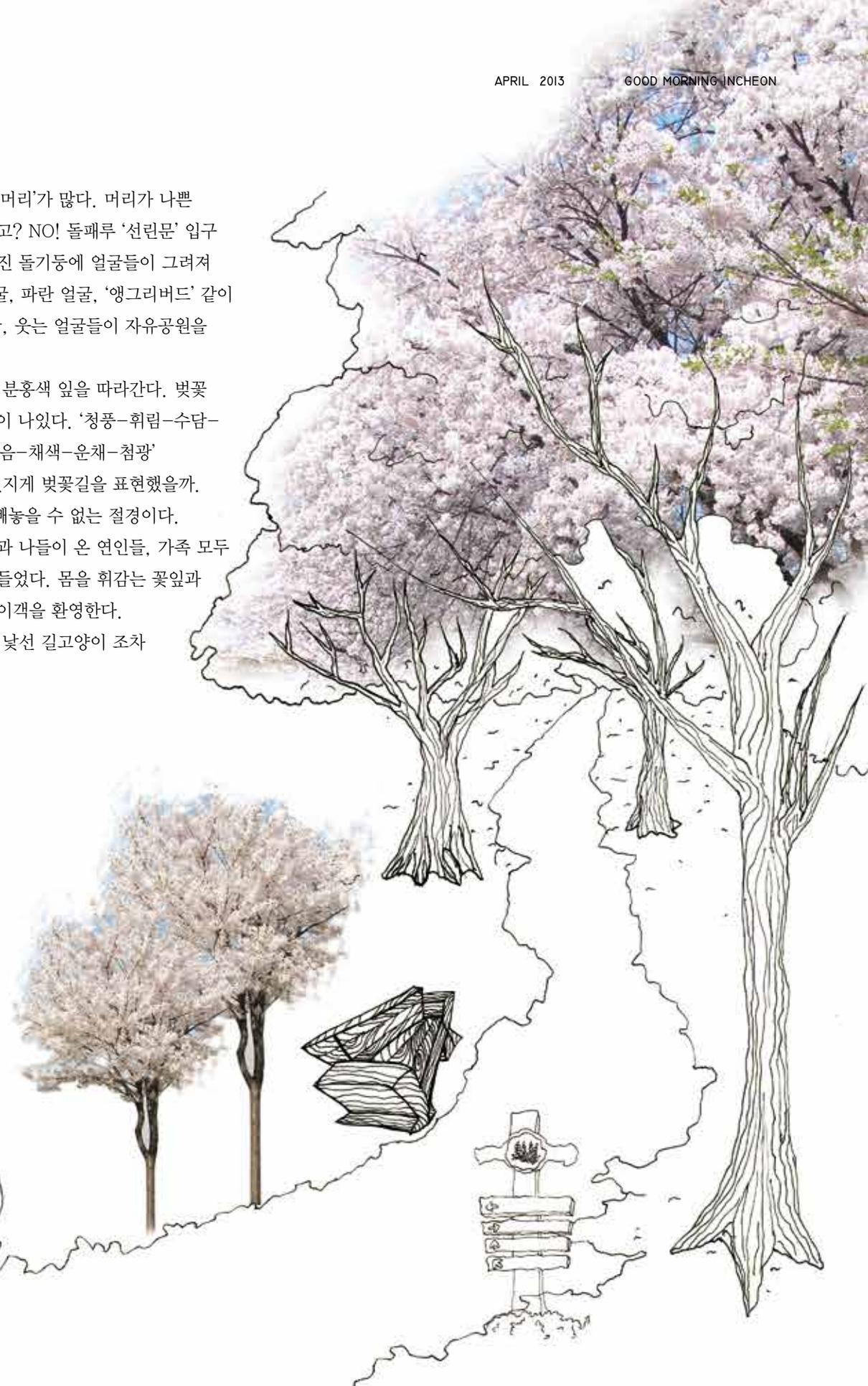
공원 서쪽 끝에는 팔각형 2층 누각이 멋지게 서있다. 1966년 인천에서 목재업과 해운업으로 돈을 많이 번 한 독지가가 인천시민을 위해 지은 누각이다. 누각 자체도 멋지지만 '石汀樓'란 글씨를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인 박세림 선생이 쓴 것이 더 유명하다. '石汀'은 그 독지가의 호이다. 많은 돈을 기부했으니 누각에 그런 이름이 붙을 만 하다. 이곳에서는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섬들이 보이는 데 특히 건너편 월미도의 모습이 가장 잘 보인다. 건너편 섬에도 하얀 꽃들이 활짝 피었다. 저녁 어스름, 10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공원의 야경은 벚꽃과도 어우러진다. 흩날리는 핑크빛 꽃잎과 까만 밤하늘, 깊고 푸른 바다가 어울려 멋진 인천 몽타주를 그려낸다.

공원의 지존, 자유공원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유명한 것 중의 하나가 벚꽃이다. 그 역사에 걸맞게 벚나무 나이테도 촘촘하다. 50년 가까이 된 벚나무 500여 그루가 제물포고 뒷담길과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주변에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특히 인천 앞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순환산책길의 벚꽃터널은 자유공원의 백미. 북성동 차이나타운 입구에 세워진 하얀 패루와 백색 벚꽃의 조화는 신비감마저 들게 한다.



자유공원엔 '돌머리'가 많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사느냐고? NO! 돌패루 '선린문' 입구 돌계단과 이어진 돌기둥에 얼굴들이 그려져 있다. 빨간 얼굴, 파란 얼굴, '앵그리버드' 같이 생긴 화난 얼굴, 웃는 얼굴들이 자유공원을 점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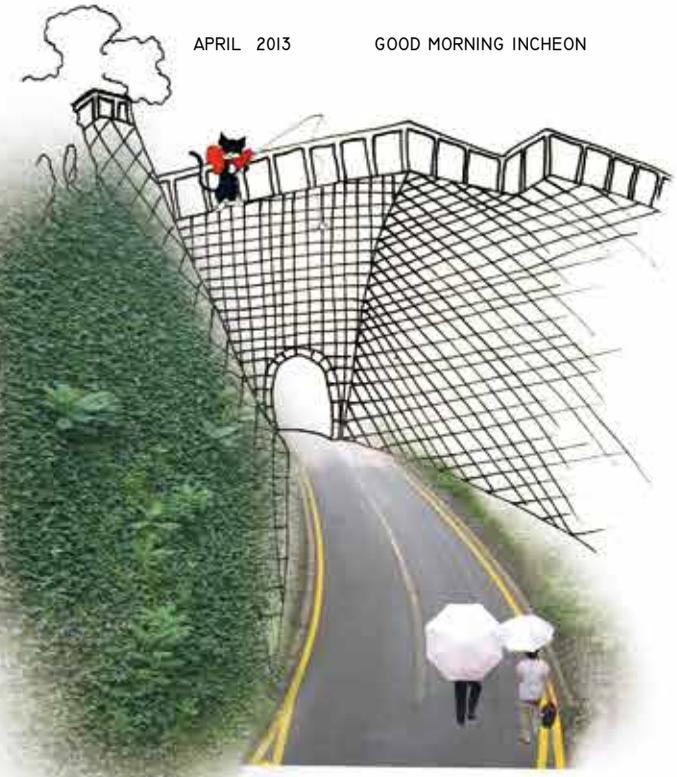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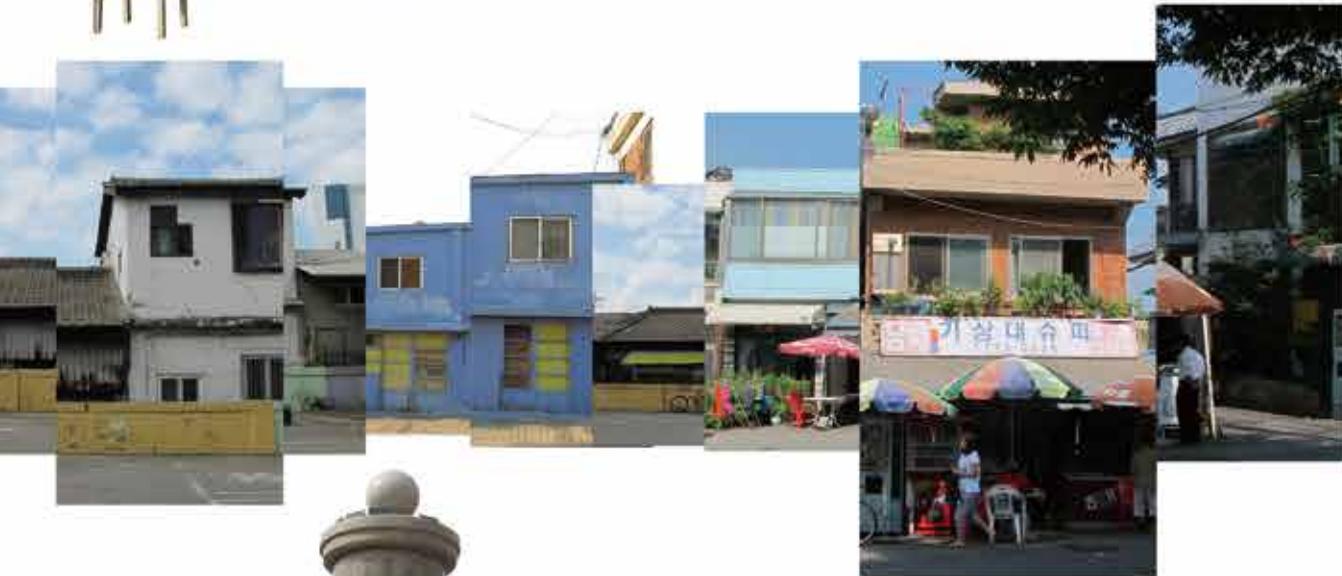
돌머리를 지나 분홍색 잎을 따라간다. 벚꽃길을 따라 9경이 나있다. '청풍-휘림-수담-소천-채영-다음-채색-운채-침광' 누가 이렇게 멋지게 벚꽃길을 표현했을까.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이다. 흩날리는 벚꽃과 나들이 온 연인들, 가족 모두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몸을 휘감는 꽃잎과 풀내음이 나들이객을 환영한다. 간간히 보이는 낮선 길고양이도 조차 경계를 풀었다.





인천기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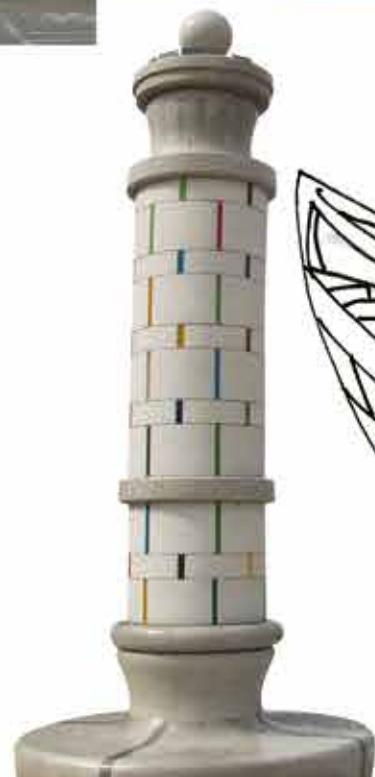
북위 37.28° 동경 126.38°. 이 좌표에 동지를 든 인천기상대는 문을 연 지 100년이 넘었다. 일제가 1905년 1월 1일 응봉산 정상에 관측장비를 갖춘 인천측우소 청사를 세웠다. 이곳에서 헬리오투도 관측했고 런던의 그리니치천문대와 기상정보를 주고받을 만큼 보유기술도 뛰어났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인천기상대는 해양기상 분석과 예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 앞에는 기상대와 함께 늪어 간 듯한 동네가 있다. 가게 이름도 '기상대 슈퍼'다.



홍예문

반세기 동안 자유공원 주변은 많이 변했지만 이 동네의 풍치를 그대로 간직하게 하는 것은 100년 세월의 이끼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돌문 때문이다. 이 문은 윗머리가 무지개 형상을 했다고 해서 홍예문(虹霓門)이란 예쁜 이름을 얻었다. 이름에 걸맞게 담쟁이 넝쿨이 계절에 따라 고즈넉한 풍광을 연출하고 있지만 이 문은 슬픈 역사를 품고 있다. 1883년 개항 후 중앙동, 신포동 일대에 터를 잡은 일본 거류민들은 전동과 만석동 방면으로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 일본 공병대의 힘으로 산허리를 잘라 문을 낸 것이다. 10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6.7m의 폭은 그대로다.

까르르. 여고생들의 웃음소리가 자유공원 광장을 울린다. 인근 여고에서 봄나들이를 나온 여고생들이다. 광장무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하나, 둘, 셋!' 하는 소리와 함께, 10대 학생들은 100년 역사에 담겼다. 사공이 많았나. 배 한척이 산으로 올라와 있다. 닻을 내린 커다란 배 모양의 나무 전망 데크에 올라 탄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다로 시선을 모은다. 예전에 이곳에는 큰 비둘기 집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광장에는 수많은 비둘기들이 사람들이 던져 주는 먹이를 주어먹는데 여념이 없다. 집이 철거되었는데도 저 비둘기들은 공원을 떠나질 못하고 있다. 어디서 살고 있을까. 어느 공원이든 광장에 비둘기 있어야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은 왜일까. 광장의 모퉁이에는 돌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다. 자세히 보니 타임캡슐을 의자로 활용해 놓은 것이었다. '2007~2017' 동근 돌 속엔 2007년의 이야기가 담겼다. 10년 뒤 누구를 위한 메시지일까. 혹은 물건일까. 2017년까지 겨우 4년 남았다!





‘수문통’ 물길 열면 인천의 길이 열린다

글 이성진 인천글목문화지킴이 이사장

물길은 아름다운 도시의 경치를 만들어 주는 까닭에, 송도국제도시에 호수와 물길을 남북으로 연결하려는 도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서 소요되는 1조845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도시의 물길은 도시개발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준다. 아름다운 도시풍경, 물류수송, 휴식공간, 관광자원, 생태공간, 자연학습공간 등 활용가치가 다양하다. 특히 고층건물이 많은 송도국제도시에서 물길따라 자연을 접할 수 있고, 수변공간에 해양, 레저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가 물길도시의 기본조건인 자연환경 보존, 도시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물론 전통한옥마을 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인천이란 도시의 역사와 문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물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자연환경, 유람선 관광, 산책, 자전거, 자연학습활동 공간을 인공적으로 제공해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물길도시의 기본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왜 인공 물길도시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다. 인천은 원래 전통 물길도시였다. 천혜의 물길인 송현동 ‘수문통’이 있었다. 수문통은 인천이 물길도시가 아닌 내륙도시를 지향하면서 찬밥신세로 전락되어 ‘똥바다’로 불리기까지 하더니 결국 복개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너무 쉽게 하천을 복개했다.

그렇지만 2000년대가 되면 토건위주의 도시개발정책

에 의해 복개된 서울 청계천이 30년 만에 다시 복원되었다.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뿐만 아니라 옛 다리가 발견되면서 역사문화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전혀 이런 논의조차도 없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에 1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해 인공 물길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청계천에 못지않은 관광명소이면서 역사문화예술 공간인 송현동 ‘수문통’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인공 물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바다를 향해 닫혀 있는 송현동 ‘수문통’ 물길을 열면 배길, 올레길, 자전거길, 산책길이 생겨나고, 동구 골목길,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 배다리, 우각로 문화마을, 더 나아가서는 개항장, 중국인거리까지 연결되는 수변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동인천역이 위치해 있어 교통편도 매우 편하다.

진정한 물길도시 인천이 되고자 한다면 송현동 ‘수문통’부터 바다로 열어야 한다. 그러면 월미도에서 시작하여 만석포구를 거쳐 수문통까지 이르는 물길이 연결되어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일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예술 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천은 ‘한국의 베니스’로 전통 물길도시 인천을 회복할 것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인천은 바다로 향해 손가락을 펼쳐야 베니스와 같은 물길도시가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 건축가 백문기

바다도시 인천을 재발견하게 해 준 말이다. 바다와 그에 접해 있는 다양한 골목길은 유럽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에도 인천에 사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 바다도시보다는 내륙도시를 지향하는 국제도시 인천을 반성하게 한다.



“방 빼?”

저는 한동안 홈리스 견공(犬公)으로 살면서 도심 곳곳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부둣가 빈집을 겨우 얻어 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시멘트 블록으로 단단하게 지어져서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없습니다.

게다가 창문도 나있어 적당히 빛도 들어오는 안락한 집입니다.

예전에 한때 해안을 지키던 군인들과 예비군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만

제 몸 하나 기거하기엔 전혀 불편 없는 고급주택입니다.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북쪽에서 핵실험을 하면서 지금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인 아저씨들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훈련받은 군견(軍犬)도 함께 올지 모른다는 데….

이제 저는 다시 길거리로 나왔어야 하나요.

(동구 화수동에서)

글·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